韓國 南部地方 沈線文系土器群·二重口緣土器群에 대하여

- 南部地方 新石器時代 中期以後 土器編年의 再檢討 -

田 中 聰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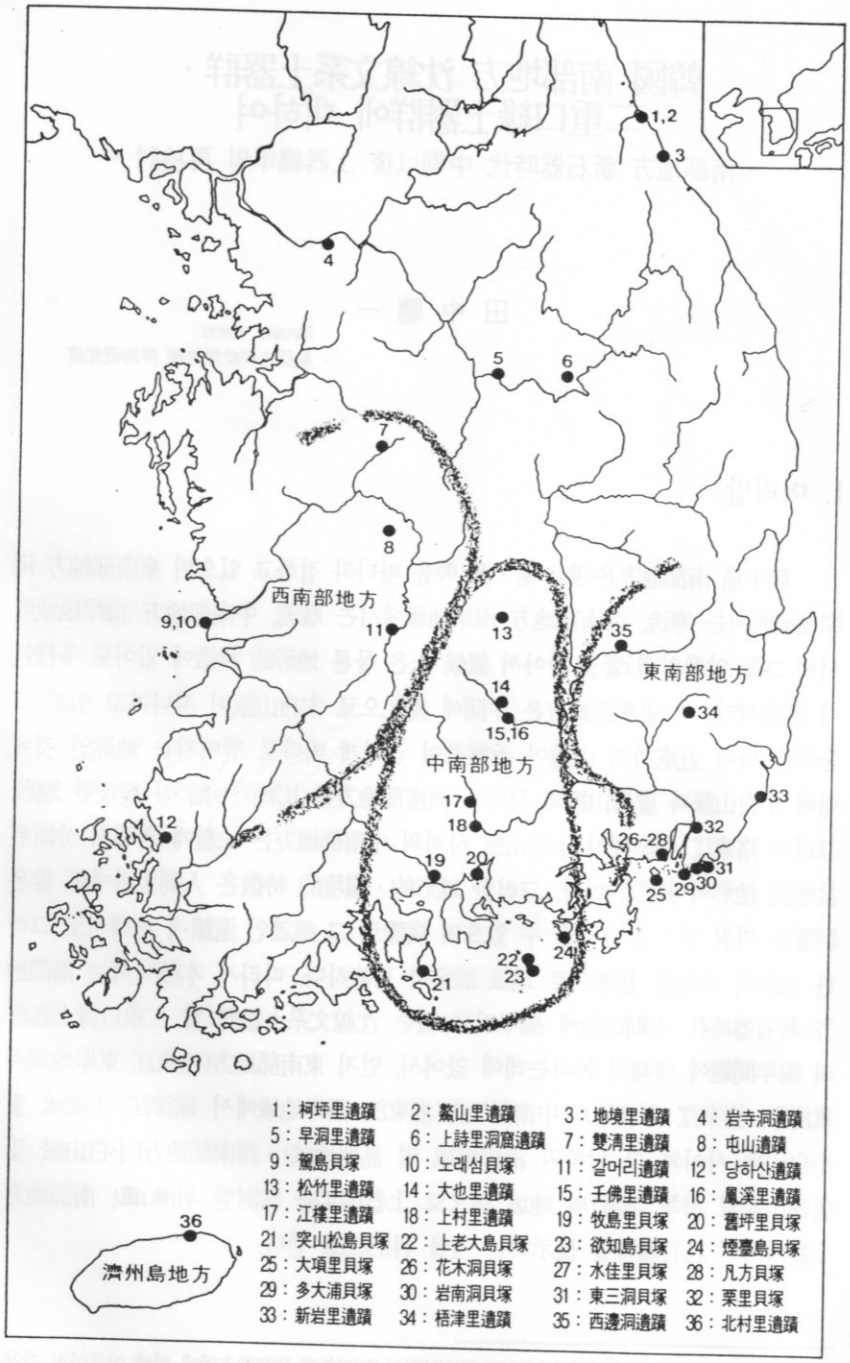
Tanaka, Soichi
東亞大學校博物館 特別研究員

1. 머리말

韓半島 南部地方은 東·南·西 쪽을 바다와 접하고 있으며 東南部地方 海岸地域에서는 寒流, 西南部地方 海岸地域에서는 暖流, 中南部地方 海岸地域에서는 그들 양쪽의 影響을 받아서 氣候 上은 물론 地形的 特徵에 있어도 多樣性이 認定된다. 즉 東南部地方은 中間에 南北으로 太白山脈이 지나가고 있고 그 동쪽은 바다 近處까지 山麓이 近接하여 급하게 바다로 떨어지는 地形인 것에 대해 小白山脈과 蘆嶺山脈의 서쪽인 西南部地方은 比較的 傾斜가 緩慢한 地形, 그리고 洛東江 西岸에서 小白山脈 사이의 中南部地方은 山麓에 의해서 分斷된 盆地狀 地形이 特徵的이다. 그러한 地形的·環境的 特徵은 人間生活에도 많은 影響을 미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實際로 그 痕迹인 遺蹟에 관해서도 그러한 地形의 特徵을 基準으로 地域 設定이 可能하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南部地方 新石器時代 中期以後에 編年되고 있는 沈線文系土器群 및 二重口緣土器群의 編年問題에 대해서 논하는데에 있어서, 먼저 東南部地方(洛東江 東岸地域과 東海岸, 洛東江 下流域)·中南部地方(洛東江 西岸地域에서 蟾津江 下流域 및 小白山脈 사이와 그 남쪽의 海岸地域 및 島嶼地域)·西南部地方(小白山脈 및 蘆嶺山脈의 서쪽 地域)의 地域 別으로 土器編年을 檢討한 뒤(第1圖), 南部地方 全體에서의 竝行關係를 提示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本 研究는 財團法人 東아시아文物研究學術財團의 2000年度 研究費支援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이 論文은 筆者가 東亞大學校 大學院에 提出한 文學博士論文(題目『韓國 中·南部地方 新石器時代 土器文化 研究』, 2000)의 一部를 修正한 것임.



第 *1* 圖 南部地方 沈線文系土器群・二重口緣土器群 出土遺蹟
및 周邊 主要遺蹟 分布圖

2. 硏究略史

南部地方 新石器時代 硏究는 日帝時代에 實施된 東三洞貝塚[1]·瀛仙洞貝塚[2]에 대한 發掘調査를 비롯하여 新岩里遺蹟[3]·岩南洞貝塚·多大浦貝塚[4] 등에서 地表採集된 遺物의 紹介를 통한 資料蓄積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행해져왔다. 그 가운데 沈線文系土器群의 編年問題와 함께, 中西部地方의 岩寺洞遺蹟·渼沙里遺蹟 등에서 出土된 沈線文系土器群, 日本列島 九州島의 繩文時代 前期에 編年되고 있는 曾畑式土器 등, 周邊地域의 비슷한 特徵을 가진 土器들과의 關聯性을 問題삼은 많은 論考들이 發表되고 왔다. 한편 二重口緣土器群은 光復前에 岩南洞貝塚에서 採集되었던 資料의 公開가 늦어[5], L. L. Sample씨에 의한 東三洞貝塚 發掘調査 報告書[6]에서 東三洞貝塚의 가장 마지막 段階인 影島期의 指標가 되는 土器로 認識된 後에 新石器時代의 늦은 時期에 該當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二重口緣土器群의 資料들이 主體를 이루는 栗里貝塚[7]이나 沈線文系土器群·二重口緣土器群에 속하는 資料들이 層位的으로 出土된 水佳里貝塚[8]의 發掘調査를 통해서 그 硏究가 1980年代 以後 크게 關心을 가지게 되었다[9].

南部地方 新石器時代 土器編年의 體系的인 硏究는 먼저 佐藤達雄씨에 위해서 本格的으로 시작되었는데[10], 層位的인 調査資料가 없는 狀況에서 型式學的 方法으로 分析된 그의 硏究方法 上의 問題點은 前述한 東三洞貝塚에서의 層位的인 發掘調査[11]를 통해서 修正되었다[12]. 東三洞貝塚의 發掘調査 結果는 南部地方 新石器時代 土器編年의 基礎가 만들어졌다는 點에서 아주 重要한 意味를 지니고 있으며, 그 後 韓半島 全體의 土器編年을 논한 崔鐘圭씨의 硏究成

1) 橫山將三郎 1931, 及川民次郎 1933
2) 有光敎一 1936
3) 齊藤忠 1935
4) 大曲美太郎 1934
5) 有光敎一 1965
6) L. L. Sample 1974
7) 金廷鶴·鄭澄元 1980
8) 鄭澄元·林孝澤·申敬澈 1981
9) 鄭澄元 1982
10) 佐藤達雄 1963
11) A. Mohr, C. S. Chard, L. L. Sample 1966
12) 佐藤達雄씨의 論考에서는 南部地方 土器編年이 크게 第一樣式(本稿의 沈線文系土器群)→第2樣式(本稿의 刺突·押引文系土器群)→第3樣式(本稿의 隆起文系土器群)·第4樣式(無文樣土器)이라는 順序로 設定되어 있었는데 東三洞貝塚의 發掘調査를 통해서 隆起文系土器群이 가장 빠르고 沈線文系土器群이 後出한다고 하는 逆轉된 編年案이 提示되었다.

果[13]를 受容한 水佳里貝塚 發掘調査 報告書[14]에서 現行의 南部地方 新石器時代 5期編年(水佳里編年)이 設定되었다. 水佳里編年은 그때까지 南部地方을 中心으로 採集된 資料들도 檢討對像으로 한 것이며, 樣相이 不明確했던 南部地方 新石器時代 土器編年을 體系化한 點에서 評價되어 그 後의 硏究의 基準이 되었다. 本稿에서 檢討하는 沈線文系土器群·二重口緣土器群은 水佳里編年의 中~晩期(3~5期)에 該當되는 資料들인데, 水佳里貝塚의 存續時期가 바로 그 時期에 該當되며 각각 水佳里 Ⅰ期·Ⅱ期·Ⅲ期로 設定되고 있다. 여기서 약간 길어지지만 本稿의 內容과도 크게 關聯되는 部分이기 때문에 段階設定의 基準이 된 水佳里貝塚 第3區의 各 時期의 內容을 發掘調査 報告書를 參考로 해서 整理해 두고자 한다.

水佳里Ⅰ期 : Ⅵ·Ⅵ-Ⅴ·Ⅴ層 出土 土器(水佳里Ⅰ式土器)를 指標로 한다. 有文土器와 無文樣土器가 있으며 丹塗土器도 出土되고 있다. 有文土器는 太線沈線에 의한 施文을 特徵으로 하여 文樣構成의 樣相에서 口緣部에 短斜集線文, 胴部에 橫走魚骨文이 施文되는 段階(Ⅰ期 前葉), 口緣部文樣이 集線文系統의 諸文樣과 斜格子文으로 되는 段階(Ⅰ期 中葉), 胴部文樣이 消失되며 口緣部文樣帶에 集線系文樣·斜格子文·短斜集線文 등이 單獨文樣으로서 施文되는 段階(Ⅰ期 後葉)로 다시 細分되고 있다.

水佳里Ⅱ期 : Ⅳ·Ⅳ-Ⅲ·Ⅲ層 出土 土器(水佳里Ⅱ式土器)를 指標로 한다. 有文土器와 無文樣土器가 있으며 丹塗土器는 Ⅳ層까지 出土되고 以後는 出土되지 않고 있다. 水佳里Ⅰ期 土器의 많은 部分을 繼承하고 있으나 有文土器의 劣勢, 文樣의 退化 및 單純化가 보일 뿐만 아니라 文樣이 擦過狀 沈線·細沈線에 의해서 새겨져 있는 點이 큰 特徵이다. 앞 段階의 傳統을 繼承하며 口緣部 文樣帶에 斜格子文이나 三角集線文이 粗雜하게 施文되는 段階(Ⅱ期 前半)와 文樣의 幾何學的 特性이 完全히 사라지고 文樣이 極度로 退化 내지 粗雜化되는 段階(Ⅱ期 後半)에 나뉘어진다.

水佳里Ⅲ期 : Ⅱ·Ⅰ層 出土 土器(水佳里Ⅲ式土器)를 指標로 한다. 有文土

13) 崔鐘圭 1977
14) 鄭澄元·林孝澤·申敬澈 1981

器와 無文樣土器로 나눌 수 있는데 無文樣土器가 主體를 이룬다. 水佳里Ⅱ期 土器와의 繼承關係는 별로 없고 二重口緣土器의 出現이라는 큰 變化가 認定된다. 短斜線文·爪形(刺突)文·粗雜한 平行 長斜線文 등이 보인다.

以上과 같은 海岸地域 貝塚遺蹟을 中心으로 하는 硏究가 主體를 이루었던 가운데, 1986年에 實施된 陜川댐 水沒地區에 대한 大規模 發掘調査는 硏究史上의 하나의 劃期가 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發掘調査 過程에서 壬佛里遺蹟·鳳溪里遺蹟·大也里遺蹟 등 新石器時代 遺蹟들이 調査되었는데 그 結果 거의 資料가 없었던 南部 內陸地域 新石器時代 文化에 관한 새로운 資料들이 提供되어 그 成果를 바탕으로 李東注씨는 南部 內陸地域 新石器時代 土器의 獨自性에 注目한 論考[15]를 發表했다. 여기서 씨는 內陸地域에 特徵的인 土器로서 外反口緣의 口緣部를 空白으로 남기고 그 아래 部分인 胴體上部에 文樣帶를 가진 鳳溪里式土器를 새로 設定했는데, 水佳里Ⅰ期 段階에는 海岸地域과 內陸地域에서 비슷한 土器樣式이 分布하고 있었던 것이 그 後 서서히 內陸地域의 獨自性이 나타나고 鳳溪里式土器 段階를 지나고 二重口緣土器 段階로 移行하였다고 했다. 또 海岸地域의 二重口緣土器(水佳里Ⅲ式土器)는 內陸地域에서 먼저 鳳溪里式土器를 바탕으로 發生해서 海岸地域으로 傳播된 것이라는 見解도 나타내고, 이 硏究 以後 南部地方 안에서의 地域差가 注目 받기 시작되었다.

그것에 대해 廣瀨雄一씨는 南部地方 新石器時代 後期의 土器編年을 問題로 하면서 海岸地域과 內陸地域의 關係에 대해서도 言及하고 있다[16]. 具體的으로는 水佳里編年의 再檢討를 통해서 中期와 後期의 劃期를 口緣部 直下에 無文樣 部分이 생기기 시작하는 水佳里Ⅱ式土器의 成立에 구하고, 李東注씨에 의해 南部 內陸地域의 獨自性으로 指摘된 鳳溪里式土器에 관해서는 後期 前葉의 水佳里Ⅱ式土器와 二重口緣土器에 代表되는 晩期의 水佳里Ⅲ式土器 사이를 連結시키는 後期 中葉~後葉에 該當되는 土器로 보았다. 즉 兩地域에서 보이는 樣相의 差異를 地域差가 아니라 時期差로 한 것이다.

以上의 硏究成果를 이어받아서 趙顯福씨가 南部 內陸地域의 土器에 관해서 「口緣部 形態·文樣 施文部位 및 施文手法·文樣構成 등」의 屬性에 基準을 두고 型式分類한 뒤, 各 類型의 遺蹟에서의 出土狀況을 頻度順序配列法으로 分析하는 方法으로 編年을 試圖하고 있다[17]. 그리고 南部 內陸地域에서의 土器編

15) 李東注 1991
16) 廣瀨雄一 1989

年을 水佳里編年과 對比시키면서 兩地域間의 時期的 竝行關係를 提示했는데 內陸地域과 海岸地域과의 地域性에 관해서는 「(南部 內陸地方 櫛文土器는-筆者 註)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와 거의 類似한 形態를 가지고 있지만 細部的으로 살펴보면 "外反口緣" "文樣 空白部 生成" "點列文系統 文樣의 急增" "砂質性胎土" 등 다른 特徵들도 가지고 있다.」[18]고 하여, 砂質性胎土에 관해서는 西海岸地域과의 關係를 想定하면서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가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의 影響을 받아 自體的으로 變化 發展된 것」[19]이라고 보는 李東注씨와 비슷한 結論을 얻고 있다. 또 鳳溪里式土器와 水佳里Ⅱ式土器의 關係 역시 時期差가 아니라 地域差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硏究는 주로 새로운 資料들을 水佳里編年에 어떻게 對比시키는가 하는 部分이 中心으로 되어왔는데 最近에 들어 水佳里編年의 時期區分의 問題點을 指摘하는 意見이 提示되고 있다. 李東注씨는 水佳里編年에서의 各 文化期의 土器의 特徵을 文樣構成·器形의 變化 등에 注目해서 檢討하여 아래와 같은 3가지 文化層을 새로 設定했다. 그리고 第2文化層으로 設定한 Ⅲ層과 Ⅴ層의 C-14 放射性炭素年代測定値가 거의 비슷한 數値를 나타내고 있는 點에서 그 文化層의 區分이 妥當함을 確認하고 있다[20].

第1文化層 : 純貝殼層의 下層인 Ⅵ層에서 出土된 口緣部 文樣帶에 短斜集線文, 胴部以下에 太線沈線으로 橫走魚骨文을 施文한 土器를 指標로 한다. 全面施文의 尖底土器이며 口脣部가 平坦한 點을 特徵으로 한다.

第2文化層 : 貝殼層과 關係가 있는 Ⅴ~Ⅲ層에서 出土된 주로 格子文을 中心으로, 太線의 菱形集線文·三角集線文·梯形集線文등을 單獨 文樣으로서 胴體上部에 施文한 土器를 指標로 한다. 底部가 尖底이며 口緣部는 直立하고 있으나 上部層으로 갈수록 太線沈線文이 退化하여 가늘게 되고 無文樣土器의 增加나 外反口緣의 出現 등의 現象이 보인다.

第3文化層 : Ⅱ·Ⅰ層에서 出土된 土器를 指標로 한다. 1~2列 施文된 短斜線文이나 長斜線文이 施文된 單口緣土器와 二重口緣土器

17) 趙顯福 1993
18) 趙顯福 1993, pp.48, l.9~12
19) 趙顯福 1993, pp.43, l.2~4
20) 李東注 1997

를 特徵으로 하며 底部는 尖底이다.

또 그것과 關聯해서 沈線文系土器群의 起源問題에 대해 中東部地方과 南部地方의 土器群의 檢討를 통해서 從來의 中西部地方에서 南部地方으로 傳播되었다는 見解와는 달리 「北方文化의 流入이 아니라 在地 文化의 自體的 發展이며, 그 中心은 南部地域의 押引文土器가 中東部 海岸地域의 押引文後期 段階에 結合하는 過程에서 中西部地域으로 擴散되었던 것으로 判斷된다.」고 結論지우고 그 過程에서 中國 東北地域 農耕文化의 流入이 外部的인 要因으로서 作用한 것이라는 見解를 發表하고 있다[21].

한편, 崔鐘赫씨도 南部地方 新石器時代 中期 土器編年을 問題삼으면서 水佳里編年에 대한 檢討를 하고 있다[22]. 씨는 李東注씨에 의한 指摘을 認定하면서 水佳里Ⅰ·Ⅱ期의 細分問題에 대해서 出土 土器의 文樣構成과 施文技法, 口緣部 形態, 丹塗磨硏土器의 出土狀況 등에 注目해서 다음과 같이 段階를 設定하였다.

Ⅵ 層 : 1段階(中期, 太線沈線文 1段階)
Ⅴ - Ⅵ 層 : 2段階(中期, 太線沈線文 2段階)
Ⅴ~Ⅲ - Ⅳ層 : 3段階(中期, 太線沈線文 3段階)
Ⅲ 層 : 4段階(後期)
Ⅰ~Ⅱ 層 : 5段階(晩期)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水佳里編年에 있어서 後期前半이라고 編年된 水佳里Ⅱ式土器의 一部(Ⅳ層 및 Ⅲ - Ⅳ層 出土 土器)를 中期로 編年하고 있는 點이다. 이것은 Ⅵ~Ⅳ層까지의 丹塗磨硏土器·太線沈線文의 存在, 文樣의 定型化라는 樣相이 Ⅲ層 以後의 丹塗磨硏土器·太線沈線文의 不在, 文樣의 退化라는 樣相과 確然히 區別된다는 것을 根據로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硏究들은 주로 嶺南地方, 즉 東南部地方과 中南部地方을 中心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것에 대해 最近에 들어서 活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西南部地方에서의 發掘調査의 進展과 함께 多數의 新石器時代 遺蹟들도 確認·調査됨에 따라서 新石器時代 硏究도 活潑하게 이루어

21) 李東注 2001
22) 崔鐘赫 2000

지고 있다[23]. 그러나 大部分의 硏究는 出土遺物이나 遺蹟의 分布狀況을 바탕으로 한 文化論이며 一部 論考나 資料紹介 中에서 土器의 編年的 位置에 관한 言及이 있는 외에는 南部地方 新石器時代 編年, 나아가서는 韓半島의 新石器時代 編年과의 對比가 充分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現況이다. 물론, 西南部地方 新石器時代 土器編年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資料的 問題 때문에 地域內의 資料만으로 編年 體系를 만드는 作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周邊 地域의 土器編年과의 對比를 통해서 어느 程度는 可能하다고 생각된다.

以上과 같이 지금까지의 南部地方 沈線文系土器群과 二重口緣土器群의 編年硏究는 水佳里編年을 基準으로 해서 그것과 各 遺蹟에서의 調査結果가 어떤 關係에 있는지를 檢討하는 作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基準이 되고 있는 水佳里編年 自體를 再檢討할 必要性이 提起되면서 過去의 資料까지 거슬러 올라간 總合的인 檢討를 하는 것은 充分히 意味있는 作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土器의 地域性 問題에 관해서도 먼저 遺蹟 分布狀態에서 東南部地方·中南部地方·西南部地方으로 地域을 나누고 各 地方마다 土器編年을 試圖한 뒤, 南部地方 全體에서의 編年의 竝行關係를 檢討하는 것으로 旣存 硏究와는 다른 視點에서 논하고자 한다[24].

3. 土器의 型式分類

本稿에서 檢討하는 沈線文系土器群 및 二重口緣土器群 中, 沈線文系土器群은 文樣帶가 口緣部 내지 口緣部에서 胴體上部까지로 限定되는 刺突·押引文系土器群과는 施文規制를 달리 하는 全面施文 沈線文土器의 出現을 劃期로 하여, 二重口緣土器群까지 이어지는 一連의 土器 樣式群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樣式群의 設定은 水佳里貝塚 發掘成果에서도 이미 確認되고 있는 內容이다. 그러나 水佳里編年에 관해서는 水佳里Ⅰ式土器와 Ⅱ式土器의 分類에 대해서 最近에 李東注·崔鐘赫씨에 의해서 指摘되고 있는 바와 같이 再檢討의 餘地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土器의 分類에 있어서는 當該 時期에 속한다고

23) 申鍾煥(1995), 金建洙(1998), 宋銀淑(1998), 李相均(1998), 韓永熙(1998), 林尙澤(1999)씨 등의 論考 외에도 發掘調査 報告書·槪報 등을 통해서 많은 資料들이 報告되고 있다.

24) 韓半島 新石器時代의 文化樣相를 밝히기 위해서 濟州島地方의 遺蹟이나 遺物들도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當該 地域에서 지금까지 發掘調査·報告된 遺蹟들이 얼마 없어서 그 樣相을 充分히 理解하기 어려운 現況이다. 이 部分에 대해서는 앞으로 資料의 蓄積을 기다리고 다시 논하기로 한다.

判斷되는 土器 全體에 대해서 型式學的 分類를 試圖했다. 또한 二重口緣土器群에 관해서 水佳里貝塚의 發掘成果에 의하면 水佳里Ⅱ式土器와 Ⅲ式土器 사이에 型式學的 劃期를 設定할 수 있으나, 鳳溪里遺蹟 出土 土器[25] 등으로 代表되는 口緣部를 二重口緣으로 만들고 胴部에 沈線 斜格子文이 施文된 土器의 存在를 勘案할 때, 沈線文系土器群과 二重口緣土器群은 文樣構成에 있어서 서로 共通되는 部分이 많다는 點도 指摘할 수 있다. 따라서 兩 樣式群의 移行關係를 밝히기 위해서도 兩者를 함께 檢討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判斷해서 沈線文系土器群과 二重口緣土器群에 관해서도 함께 型式分類하였다.

한편, 出土 土器의 器種이나 文樣의 特徵에 있어서는 같은 南部地方 中에서도 東南部地方·中南部地方·西南部地方으로 型式學的으로 若干의 差異가 認定된다. 이것은 各 地域과 周邊地域과의 地理的·文化的 關係에서 起因되는 일이라고 多分히 생각되어지는데, 이러한 差異가 時期的으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時期와 그렇지 않은 時期가 나뉘어진다. 따라서 型式 分類에 있어서는 일단 南部地方 全體를 視野에 두고 實施하여 그 안에서의 地域的 樣相의 差異에 대해서는 나중에 檢討하기로 한다.

먼저 沈線文系土器群과 二重口緣土器群의 器種에 관해서 살펴보면, 二重口緣土器群에서는 器種의 Set關係를 알 수 있는 資料가 아직까지 充分히 없기 때문에 不確實하지만, 全體的으로 크게 鉢形(深鉢形)[26]·淺鉢形·埦形·壺形·高坏形(脚臺附 土器)으로 分類할 수 있다. 그리고 各 器種은 口緣部 形態·把手部의 有無[27] 등 器形의 細部的 特徵에 따라 보다 細分이 可能한데, 이들 가운데 遺蹟에서 가장 많이 出土되는 것이 鉢形土器이며 그 文樣 및 器形의 變化가 時間性을 檢討하기 의해서는 가장 適當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鉢形土器의 器形 및 文樣構成에 注目해서 型式分類를 實施했는데[28], 具體的으로 文樣을 中心으로 한 型式分類에 들어가기 前에 沈線文系土器群 및 二重口緣土器群의 文樣에 使用되고 있는 文樣要素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沈線文系土器群 및 二重口緣土器群의 文樣要素는 크게 沈線技法과 刺突

25) 沈奉謹 1989

26) 深鉢形土器와 鉢形土器의 器形上의 關係는 口緣部와 器高의 比率에서 差異가 나는 것이지만 實際로 그것을 區別하는 것은 어렵고 比較的 큰 個體를 深鉢形, 약간 작은 個體를 鉢形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本稿에서는 兩者를 一括하는 槪念으로서 鉢形土器라는 用語를 使用한다.

27) 把手附 土器는 鉢形土器와 壺形土器에서 볼 수 있으며, 그 有無를 基準으로 해서 細別器種의 設定, 즉 다른 機能을 가진 하나의 獨立的인 器種으로서 分類할 必要性이 있다고 생각한다.

28) 型式分類에 있어서는 趙顯福씨에 의해서 提示된 分類案(趙顯福 1993)을 많이 參考로 했다.

技法으로 나뉘어지는데 沈線技法으로서는 沈線·太線沈線, 刺突技法으로서는 刺突·連續刺突·反復刺突 등이 있다. 各 文樣要素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沈線技法

沈線 : 棒狀의 道具를 土器의 器面에 대고 당겨서 施文한 것이다. 單齒具로 한 줄씩 施文된 것과 多齒具를 使用해서 여러 줄을 同時에 施文한 것이 있다. 沈線의 길이가 짧은 것을 특히 短沈線이라고도 한다. 沈線 中에는 退化沈線이라고 불리는 가늘고 粗雜하게 施文된 沈線이 있는데 沈線과의 區分이 曖昧하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沈線文에 包含시켜 그러한 特徵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個別的으로 特徵을 說明하기로 한다.

太線沈線 : 沈線과 같이 棒狀의 道具를 器面에 대고 당겨서 施文한 것인데 施文의 始點과 終點의 어느 한쪽 혹은 그 양쪽을 강하게 누르고 刺突하고 있는 것이다. 施文具는 單齒具에 限定된다.

刺突技法

刺突 : 施文具를 器面에 대해서 垂直내지 비스듬한 方向에서 대고 누른 것이다. 施文具로서 單齒具가 使用되는 경우와 多齒具가 使用되는 경우가 있다.

連續刺突 : 棒狀 혹은 주걱狀의 道具를 器面에 대고 누른 後, 完全히 器面에서 道具를 떼지 않는 狀態로 조금씩 位置를 옮기면서 촘촘하게 刺突한 것이다. 주걱狀 道具로 連續刺突한 文樣을 특히 短斜集線文이라고 한다.

反復刺突 : 所謂 之字文이나 連續弧線文 등으로 불리는 文樣要素이며, 일단 주걱狀의 道具로 刺突한 뒤, 施文具의 한쪽 端部를 基點으로 해서 다른 쪽의 端部를 回傳시켜서 다시 刺突하고 다음에는 回傳시킨 쪽의 端部를 基點으로 해서 다른 쪽을 回傳시키는 動作을 反復하면서 施文된 것이다.

以上의 文樣要素들을 주로 使用해서 沈線文系土器群 및 二重口緣土器群의 文樣이 施文되고 있는데, 같은 文樣要素라도 施文具의 種類나 施文技法(角度)의 差異에 따라서 多樣한 文樣效果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全體的인 文樣은 時間·空間·社會的 範圍를 가진 文樣規制에 따라서 文樣要素·文樣形態·

文樣單位·文樣構成의 多樣한 組合으로서 表現되기 때문에 結果的으로 施文된 文樣은 아주 複雜한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들 多樣한 文樣은 口緣部 내지 胴體上部文樣帶에 施文된 몇 가지 文樣形態에 注目해서 整理할 수 있고, 다시 使用된 文樣要素와 文樣構成에 따라서 型式分類할 수 있다. 이것은 口緣部 내지 胴體上部文樣帶에 施文된 各 文樣形態가 서로 다른 記號的 意味를 表現하고 있고 그것이 時間의 흐름에 따라서 使用된 文樣要素와 文樣構成이 變化했던 結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에 實際로 土器의 型式分類를 할 때에도 그러한 立場에서 口緣部 내지 胴體上部文樣帶에 施文되는 文樣形態에 注目해서 分類하도록 한다.

沈線文系土器群 및 二重口緣土器群에 속하는 鉢形土器의 文樣은 口緣部文樣帶와 胴部文樣帶[29]를 가지고 있고 文樣帶마다 다른 文樣單位가 施文되는 複合文樣群(A文樣群)과 器面全面을 하나의 文樣帶로 보거나 口緣部 내지 胴體上部의 文樣帶에 한 가지 文樣形態만이 施文되는 單獨文樣群(B文樣群)으로 나눌 수 있다[30]. 各 文樣群은 施文되는 文樣要素·文樣形態·文樣單位·文樣構成의 特徵 및 口緣部 形態의 特徵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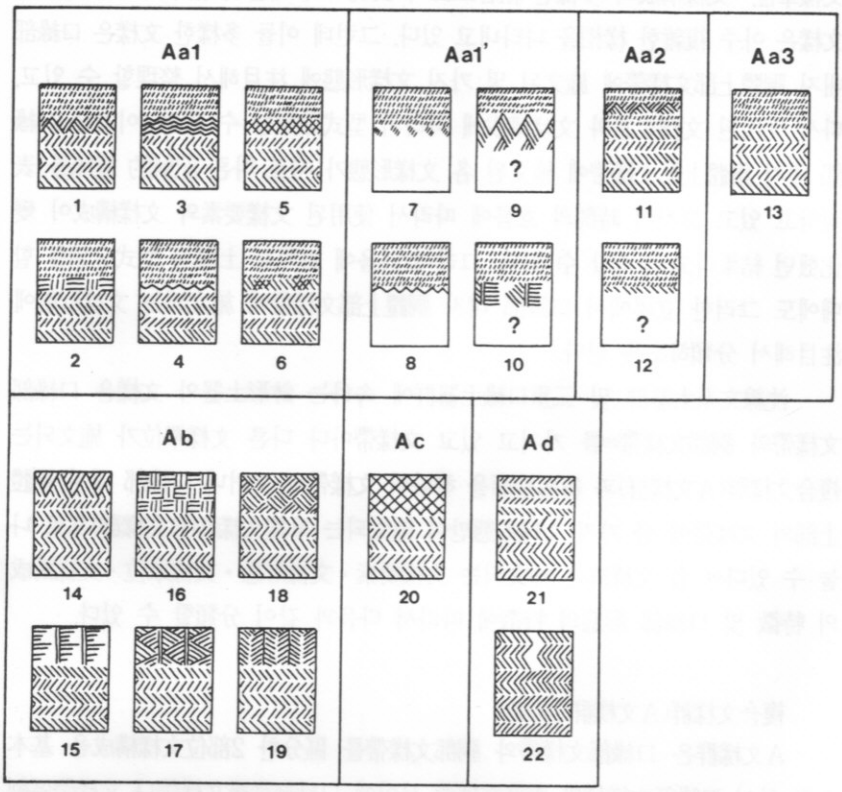
複合文樣群(A文樣群)(第2圖)

A文樣群은 口緣部文樣帶와 胴部文樣帶를 區分한 2部位文樣構成을 基本으로 하여 口緣部文樣帶와 胴部文樣帶 사이에 口緣部從屬文樣帶나 文樣帶區劃文을 施文하거나 口緣部文樣帶 中間에 附加文을 挿入하는 등 文樣帶마다 다른 文樣單位를 施文해서 複合시킨 것이다. 口緣部 形態는 直立 내지 內灣이며, 施文 開始位置는 基本的으로 口脣部 바로 아래쪽이지만 약간의 空白部를 가지고 施文이 시작된 것도 보인다. 그리고 全面施文된 것이 大部分인데 그 中에는 文樣의 一部分을 空白으로 남기는 것도 있다. A文樣群은 文樣의 特徵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시 分類할 수 있다.

Aa1類 : 口緣部에 短斜集線文 혹은 刺突點列文을 옆으로 多條로 施文하여 口緣部文樣帶와 胴部文樣帶 사이에 口緣部從屬文樣帶 내지 文樣帶區劃文, 그 밑에서 底部까지 太線沈線 혹은 沈線에 의한 橫走

29) 口緣部文樣帶와 胴部文樣帶 사이에 口緣部從屬文樣帶 내지 文樣帶區劃文을 施文한 것이나 口緣部文樣帶의 文樣形態가 短斜集線文일 경우에 그 사이에 附加文을 挿入한 것도 있다.

30) 이것은 水佳里貝塚 發掘調査 報告書에서의 分類이며(鄭澄元·林孝澤·申敬澈 1981) 中西部地方에서의 區分系文樣·同一系文樣(任孝宰 1983)과 비슷한 槪念이다.



第 2 圖 A文樣群 文樣變異 模式圖

魚骨文이 施文된 것이다. 口緣部從屬文樣帶에는 太線沈線 혹은 沈線으로 集線文系文樣(第2圖 1·2), 多條의 山形文(同 3), 斜格子文(同 5) 등이 보이며 文樣帶區劃文으로 山形文(同 4) 등이 있지만 口緣部從屬文과 같은 位置에 施文된 文樣帶區劃文을 거의 같은 文樣的 意味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것으로서 胴部의 橫走魚骨文의 가장 上位의 平行斜線列에 군데군데 反對로 傾斜한 平行斜線을 3~4條 程度 겹친 文樣(同 6)도 理解할 수 있다.

Aa1′類 : Aa1類와 基本的인 文樣構成은 같으나 胴部에서 底部의 橫走魚骨文이 省略된 것이다(同 7~10). 胴部文樣이 不分明한 것에 관해서는 Aa1類일 可能性도 있다. 文樣構成으로 보면 B文樣群으로 分類할 수도 있는 것이다.

Aa2類 : 口緣部文樣帶에 短斜集線文 내지 刺突點列文, 胴部以下에 太線沈線 혹은 沈線으로 橫走魚骨文을 施文하는 點은 다른 Aa類와 共通되지만 口緣部文樣帶의 短斜集線文·刺突點列文 사이에 附加文이 挿入되고 있는 것이다(同 11·12).

Aa3類 : 口緣部文樣帶에 橫方向의 短斜集線文 내지 刺突點列文을 多條로 施文하여, 胴部 以下에 太線沈線 혹은 沈線으로 橫走魚骨文을 施文한 것이다(同 13).

Ab類 : 口緣部文樣帶에 太線沈線 내지 沈線에 의한 三角集線文(同 14)·梯形集線文(同 15·17·19)·紐帶集線文(同 16)·菱形集線文(同 18) 등이 施文되고 胴部文樣帶에 太線沈線 혹은 沈線으로 橫走魚骨文을 施文한 것이다.

Ac類 : 口緣部文樣帶에 太線沈線 내지 沈線로 斜格子文을, 胴部文樣帶에 太線沈線 혹은 沈線으로 橫走魚骨文을 施文한 것이다(同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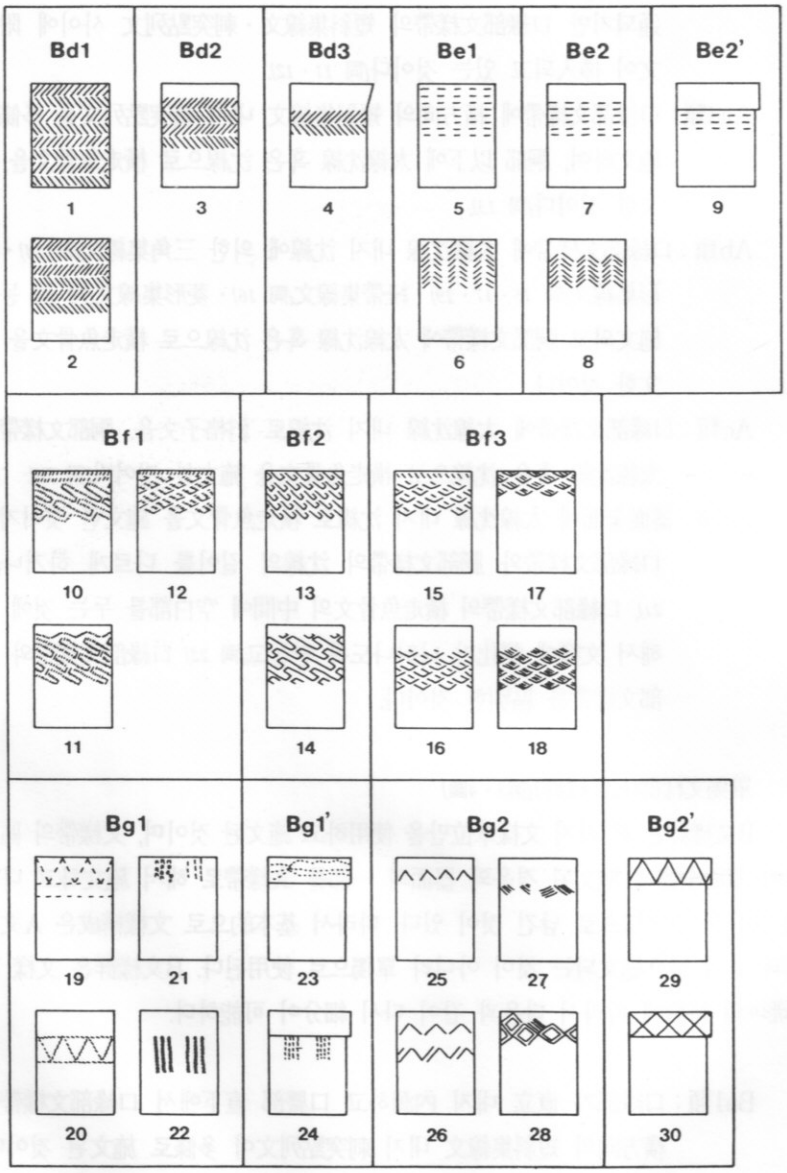
Ad類 : 器面全面에 太線沈線 내지 沈線로 橫走魚骨文을 施文한 것이지만 口緣部文樣帶와 胴部文樣帶의 沈線의 길이를 다르게 하거나(同 21), 口緣部文樣帶의 橫走魚骨文의 中間에 空白部를 두는 것에 의해서 文樣에 變化가 나타나도록 만들고(同 22) 口緣部文樣帶와 胴部文樣帶를 區別한 것이다.

單獨文樣群(B文樣群)(第3·4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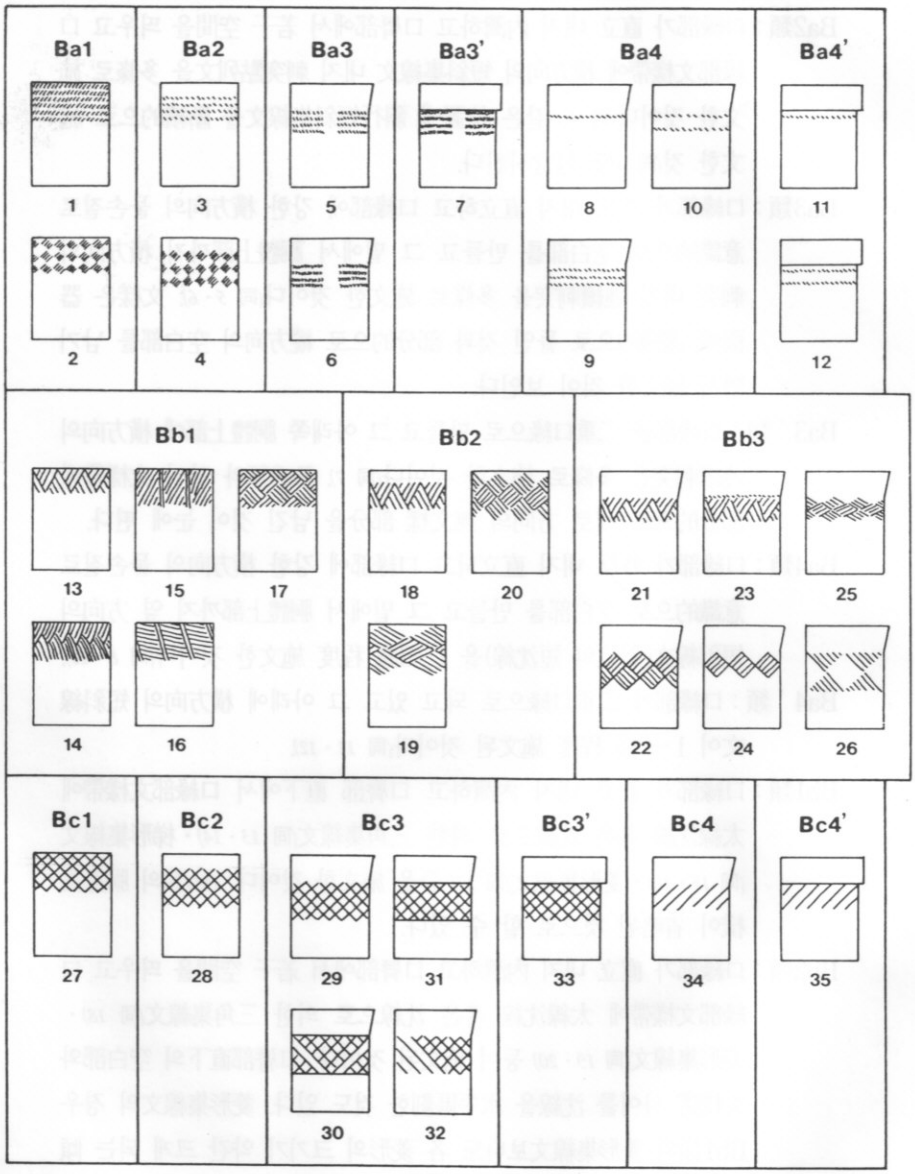
B文樣群은 한 가지 文樣單位만을 使用하고 施文된 것이며, 文樣帶의 區分없이 器面全體에 施文된 경우와 器面의 一部를 文樣帶로 해서 施文하고 나머지 部分을 無文樣으로 남긴 것이 있다. 따라서 基本的으로 文樣構成은 A文樣群과 같이 複合施文되는 것이 아니라 單獨으로 使用된다. B文樣群은 文樣 및 器形[31]의 特徵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시 細分이 可能하다.

Ba1類 : 口緣部가 直立 내지 內灣하고 口脣部 直下에서 口緣部文樣帶에 橫方向의 短斜集線文 내지 刺突點列文이 多條로 施文된 것이며, Aa3類의 胴部文樣이 省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第3圖 1). 嚴

31) 여기서 器形은 口緣部形態를 말하며, 文樣變異의 型式分類 基準에 口緣形態의 差異를 考慮해 넣은 것은 口緣部가 直立하고 있는지 外反하고 있는지, 혹은 單口緣인지 二重口緣인지의 形態的 差異는 物理的 機能差라고 하기보다도 그 形態가 나타내는 記號的 意味의 差異에서 起因하는 部分이 많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第 *3* 圖 *B*群文樣群 文樣變異 模式圖*(1)*



第 4 圖 B群文樣群 文樣變異 模式圖(2)

密히는 다른 文樣變異로서 分類되어져야 하지만 口緣部文樣帶에 斜行短斜集線文을 斷續的으로 施文한 것(同 2)도 包含시킨다.

Ba2類 : 口緣部가 直立 내지 內灣하고 口脣部에서 若干 空間을 띄우고 口緣部文樣帶에 橫方向의 短斜集線文 내지 刺突點列文을 多條로 施文한 것이다(同 3). 같은 位置에 斜行短斜集線文을 斷續的으로 施文한 것(同 4)도 包含시킨다.

Ba3類 : 口緣部가 外反 내지 直立하고 口緣部에 강한 橫方向의 물손질로 意識的으로 空白部를 만들고 그 밑에서 胴體上部까지 橫方向의 刺突 내지 連續刺突을 多條로 施文한 것이다(同 5·6). 文樣은 器面에 連續的으로 돌인 것과 部分的으로 縱方向의 空白部를 남기면서 施文한 것이 보인다.

Ba3′類 : 口緣部를 二重口緣으로 만들고 그 아래쪽 胴體上部에 橫方向의 連續刺突을 多條로 施文한 것이다(同 7). Ba3類와 같이 文樣帶에 部分的으로 세로 方向의 無文樣 部分을 남긴 것이 눈에 띈다.

Ba4類 : 口緣部가 外反 내지 直立되고 口緣部에 강한 橫方向의 물손질로 意識的으로 空白部를 만들고 그 밑에서 胴體上部까지 옆 方向의 短斜線文(斜位의 短沈線)을 1~3條 程度 施文한 것이다(同 8~10).

Ba4′類 : 口緣部가 二重口緣으로 되고 있고 그 아래에 橫方向의 短斜線文이 1~2條 程度 施文된 것이다(同 11·12).

Bb1類 : 口緣部가 直立 내지 內灣하고 口脣部 直下에서 口緣部文樣帶에 太線沈線 혹은 沈線으로 의한 三角集線文(同 13·14)·梯形集線文(同 15·16)·菱形集線文(同 17) 등을 施文한 것이다. Ab類의 胴部文樣이 省略된 것으로 할 수 있다.

Bb2類 : 口緣部가 直立 내지 內灣하고 口脣部에서 若干 空間을 띄우고 口緣部文樣帶에 太線沈線 혹은 沈線으로 의한 三角集線文(同 18)·菱形集線文(同 19·20) 등이 施文된 것이다. 口脣部直下의 空白部와 文樣帶 사이를 沈線을 水平區劃한 것도 있다. 菱形集線文의 경우 Bb1類의 菱形集線文보다도 各 菱形의 크기가 약간 크게 되는 傾向이 보인다.

Bb3類 : 口緣部가 外反 내지 直立되고 있고 口緣部에 강한 橫方向의 물손질로 意識的으로 空白部를 만들고 아래쪽 胴體上部에 주로 沈線에 의한 三角集線文(同 21·23·26)이나 菱形集線文(同 22·24·25)을 施文한 것이다.

Bc1類 : 口緣部가 直立 내지 內灣하고 口脣部 直下에서 口緣部文樣帶에 太線沈線 혹은 沈線으로 의한 斜格子文을 施文한 것인데 Ac類의 胴部文樣이 省略된 것이다(同 27).

Bc2類 : 口緣部가 直立 내지 內灣하고 口脣部에서 若干 空間을 띄우고 太線沈線 혹은 沈線으로 의한 斜格子文이 口緣部文樣帶에 施文된 것이다(同 28).

Bc3類 : 口緣部가 外反 내지 直立되고 있고 口緣部에 강한 橫方向의 물손질로 意識的으로 空白部를 만들어 그 아래쪽에서 胴體上部에 주로 沈線에 의한 斜格子文이 施文된 것(同 29)인데, 橫位의 沈線으로 文樣帶區劃하거나(同31) 斜格子를 一部 省略한 것(同 30·32)도 보인다.

Bc3′類 : 口緣部를 二重口緣으로 肥厚시키고 그 밑에서 胴體上部까지 沈線 斜格子文을 施文한 것이다(同 33).

Bc4類 : 口緣部가 外反 내지 直立되고 있고 口緣部에 강한 橫方向의 물손질로 意識的으로 空白部를 만들어 그 아래쪽 胴體上部에 주로 沈線에 의한 平行斜線文이 施文된 것이다(同 34).

Bc4′類 : 口緣部가 二重口緣으로 되고 있고 그 밑에서 胴體上部까지 沈線으로 平行斜線文을 施文한 것이다(同 35).

Bd1類 : 口緣部가 直立 내지 內灣하고 있고 口脣部 바로 밑에서 底部 혹은 胴體下部까지 太線沈線 혹은 沈線에 의한 橫走魚骨文을 施文한 것이다(第4圖 1·2).

Bd2類 : 口緣部가 直立 내지 內灣하고 있고 口脣部에 若干의 空白을 띄우고 口緣部에서 胴體上部까지 주로 沈線에 의한 橫走魚骨文이 施文된 것이다(同 3).

Bd3類 : 口緣部가 外反 내지 直立되고 있고 口緣部에 강한 橫方向의 물손질에 의해서 意識的으로 空白部를 만들어 그 밑에서 胴體上部에 주로 沈線에 의한 橫走魚骨文을 施文한 것이다(同 4). 文樣帶 幅은 그다지 넓지 않다.

Be1類 : 口緣部가 直立 내지 內灣하고 있고 口脣部 直下에서 胴體上部까지 水平 方向의 短沈線을 세로 方向에 平行으로 여러 줄겹친 것을 한 單位로 하여 여러 개 施文한 것이다(同 5). 短沈線을 겹친 세로 方向의 列을 强調하기 의해서 옆에 位置하는 것들끼리 短沈線의 傾斜를 反對로 한 結果로서 縱走魚骨文化된 것도 보인다

(同 6)[32].

Be2類 : 口緣部가 直立 내지 內灣하고 있고 口脣部의 약간 밑에서 Be1類와 같은 文樣形態를 施文한 것이다(同 7·8). 口脣部 直下의 空白部와 文樣帶 사이를 沈線으로 水平區劃한 것도 있다.

Be2′類 : 口緣部을 肥厚시켜서 二重口緣으로 만들고 肥厚部 아래 部分에 3條 程度의 水平短沈線을 한 單位로 하는 文樣形態를 여러 개 施文한 것이다(同 9).

Bf1類 : 短斜集線文으로 斜行凹凸文을 施文한 것을 基本으로 하며 口脣部 直下에 橫方向의 短斜集線文 1條 내지 2條로 水平區劃한 뒤, 胴體上部까지 施文한 것(同 10·12)과 口緣部에 一定한 空白을 두고 胴體上部까지 施文한 것(同 11) 등이 있다. 斜行凹凸文의 위쪽 내지 아래쪽, 혹은 그 양쪽을 山形 短斜集線文으로 區劃한 것도 보인다. 口緣部 形態는 直立 내지 內灣하면서 가볍게 外反하고 있다.

Bf2類 : Bf1類의 文樣을 連續刺突(短斜集線文)가 아니라 沈線으로 表現한 것이다. 文樣形態가 약간 整然하지 못하고 ㄷ字形을 나타낸 것도 있으나 역시 口脣部 直下에서 施文을 시작한 것(同 13)과 口脣部에서 若干 空白을 띄우고 施文을 시작한 것(同 14)이 있다. 口緣部는 直立 내지 가볍게 外反하고 있다.

Bf3類 : 短沈線에 의한 斜位의 L字形과 短沈線을 組合한 所謂 鳥羽文이 施文된 것이다. 역시 口脣部 直下부터 施文을 시작한 것(同 15·17)[33]과 一定한 空白部를 가진 것(同 16·18)이 있는데 後者가 大部分이다. 口緣部는 直立 내지 外反하고 있다.

Bg1類 : 短沈線 혹은 刺突點列을 文樣要素로 쓴 文樣인데 出土數가 적거나 類型化하기 어려운 것들을 一括하였다. 短沈線에 의한 文樣帶 區劃 內部 혹은 水平區劃 上位에 山形文을 配置한 것(同 19·20)이나 口脣部 直下 혹은 口脣部의 若干 밑에서 複數條를 한 單位로 한 刺突點列文을 垂下시킨 것(同 21·22) 등 以外에 無秩序한 刺突點列文을 施文한 것도 包含시켰다.

---

32) 용담댐 水沒地域內의 鎭安 갈머리遺蹟 出土 縱走魚骨文에 대해서 調査者인 李永德씨도 「平行短線文」의 變形으로 생각된다는 見解를 밝힌 바가 있다(李永德 2001, pp. 37, l. 31~32).

33) 第4圖-17의 文樣變異에 관해서는 鉢形土器에 施文된 것이 아니라 埦形土器에 施文된 文樣이다(啓明大學校博物館 1994, 圖版10-19).

Bg1′類 : 口緣部가 二重口緣으로 된 것들 中, 二重口緣의 肥厚部에 不規則한 刺突文이 施文되거나(同 23) 肥厚部 밑에 複數條를 하나의 單位로 한 刺突點列文을 垂下시킨 것(同 24)이다.

Bg2類 : 沈線을 文樣要素로 使用한 文樣인데 出土數가 적거나 類型化하기 어려운 것들을 一括하였다. 口緣部 혹은 口脣部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若干 整然하지 못한 山形文을 1段 내지 2段 施文한 것(同 25·26), 多齒具로 山形文을 施文한 것(同 27), 二重의 菱形을 上下左右로 組合시킨 것(同 28) 등 以外에 無秩序하게 施文된 沈線文도 包含시켰다.

Bg2′類 : 口緣部 形態가 二重口緣으로 된 것들 가운데, 口緣 肥厚部 上에 沈線으로 山形文·X字文 등을 施文한 것이다(同 29·30). 기타 口緣 肥厚部 아래에 斜線에 의한 山形文系統의 文樣이 施文된 경우(同 31)도 包含시켰다.

以上과 같이 鉢形土器 A文樣群은 7가지, B文樣群은 28가지 文樣變異로 細分할 수 있다.

4. 沈線文系土器群·二重口緣土器群의 變遷過程

여기서는 앞에서 型式分類한 文樣變異에 대해서 먼저 型式學的으로 變遷過程을 檢討한 뒤, 各 地域마다 遺蹟에서의 出土狀況을 함께 考慮하면서 土器變遷過程 및 地域間의 時期的 竝行關係를 提示한다.

(1) 型式學的 變遷過程의 檢討

A文樣群은 器面全體를 몇 개 文樣帶로 區分하여 各 文樣帶에 서로 다른 文樣單位를 施文한 複合文樣構成의 文樣變異이다. Aa類는 口緣部文樣帶에 短斜集線文이 施文되는 것을 基本으로 한 文樣變異들인데, 口緣部文樣帶와 胴部文樣帶 사이에 口緣部從屬文樣帶를 가진 것(Aa1類·Aa1類의 胴部文樣이 省略되어서 Aa1類에서 派生되었다고 把握할 수 있는 것[34](Aa1′類)·口緣部文

34) 胴部文樣이 不確實한 것에 관해서는 Aa1類에 屬하는 것일 可能性도 있다. 이것은 Ba1·Bb1類 등의 다른 文樣變異의 土器가 口緣部片으로서 出土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樣帶의 短斜集線文 사이에 附加文이 挿入되고 文樣構成 上에서 Aa1類와 서로 關係가 있다고 보이는 것(Aa2類)·口緣部文樣帶와 胴部文樣帶로 構成된 것(Aa3類)으로 나뉘어진다. 그 中, Aa1類의 口緣部從屬文樣帶와 Aa2類의 附加文은 Aa1類의 口緣部文樣이 複寫된 것으로서 생각하면 型式學的으로 가까운 位置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Aa1′類에 관해서는 Aa1類에서 派生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에서 同時期 혹은 약간 늦은 時期에 該當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Aa1類와 Aa3類의 關係에 대해서는 筆者가 中西部地方의 漢江流域·京畿灣地域의 土器編年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35] 前者가 後者에 先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點을 基準으로 하면, Aa類에 관해서 Aa1類(→Aa1′類)·Aa2類→Aa3類라는 變遷過程을 想定할 수 있다. 다음 Ab·Ac類에 관해서는 Aa3類의 口緣部文樣帶의 文樣形態로서 短斜集線文이 아니라 (太線)沈線에 의한 各種 集線文(Ab類)와 斜格子文(Ac類)이 施文된 것이다. 그들 口緣部文樣帶의 文樣形態는 Aa1·Aa1′類의 口緣部從屬文樣帶의 文樣形態와 많은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Aa1類의 口緣部文樣帶가 口脣部쪽으로의 縮小 내지 削除됨에 따라서 口緣部從屬文樣帶가 口緣部文樣帶쪽으로 移動된 것으로 理解할 수 있으며, Aa1類→Ab·Ac類라는 變遷過程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變化의 背景에는 주로 口緣部文樣帶를 中心으로 文樣이 施文되는 南部地方 刺突·押引文系土器群의 傳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刺突·押引文系土器群 Ⅳ段階의 沈線文系文樣群[36]의 存在가 口緣部從屬文樣帶를 口緣部文樣帶와 同義로 理解하는 方向으로 思考가 轉換되는데 있어서 作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37]. Ad類는 器面全體가 (太線)沈線 橫走魚骨文으로 裝飾되면서도 沈線의 길이를 다르게 하거나 文樣에 變化를 가지게 하는 것에 의해서 口緣部文樣帶와 胴部文樣帶를 區分한 것이다. 이것 역시 複合文樣構成으로 全面施文된 文樣構成을 刺突·押引文土器群 段階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刺突·押引文系土器群에서 口緣部文樣帶에 橫走魚骨文이 施文되었던 傳統을 이어 받고 口緣部文樣으로서 橫走魚骨文이 採用된 것으로 理解할 수 있고, 文樣構成 上에 있어서 Aa3類와 비슷한 意味를 가진 文樣變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a1類→Ad類라는 變遷過程이 想定되며, 앞에서 想定한 Aa1類(→Aa1′類)·Aa2類→

35) 田中聰一 1994, pp.291, l.18~23

36) 田中聰一 1998

37) 中西部地方 沈線文系土器群의 胴部文樣인 縱走魚骨文이 口緣部從屬文으로 變化하는 過程에 대해서는 이미 言及한 바가 있으나(田中聰一 1999), 이 縱走魚骨文이 口緣部從屬文으로서 集線文化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筆者는 南部地方 刺突·押引文系土器群의 文樣單位의 影響이 적지 않게 存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點에 대해서는 本稿 內에서 後述하고 있다.

Aa3類라는 變遷過程과 Aa1類→Ab·Ac類라는 變遷過程을 함께 생각하면 Aa1類(→Aa1′類)·Aa2類→Aa3類, Ab·Ac類, Ad類라는 型式組列을 얻을 수 있고, Aa3類, Ab·Ac類, Ad類의 각각에 관해서는 型式學的으로 같은 段階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는 遺蹟에서의 出土狀況을 통해서 다시 檢討하기로 한다.

다음 B文樣群은 口緣部 내지 胴體上部 文樣帶에 한 가지 文樣單位를 使用해서 施文하고 나머지 部分을 無文樣으로 남긴 것과 文樣帶의 區分 없이 器面全體를 하나의 文樣帶로 보고 같은 文樣形態로 施文된 單獨文樣 文樣構成인 것이다. B文樣群으로 分類되는 文樣變異는 文樣要素·文樣形態·文樣單位·文樣構成, 口緣部 形態 등의 屬性에서 아주 多樣한 樣相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文樣帶 位置와 口緣部 形態의 差異에 注目해서 檢討한다.

먼저 Ba類에 관해서는 옆으로 平行하게 施文된 連續刺突文이나 刺突點列文을 基本的 文樣形態로 한 것이다. Ba1類는 Aa3類의 胴部文樣이 省略된 것으로 口脣部 直下에서 施文되고 있는 것이며, Ba2類는 口脣部의 약간 밑에서 施文이 시작된 것, Ba3類는 口緣部를 옆으로 강하게 물손질해서 一定한 空白部를 意識的으로 남기고 胴體上部에 施文된 것이고[38], 口緣部 形態는 주로 Ba1類가 內灣 내지 直立, Ba2類가 直立, Ba3類가 直立 내지 外反이라는 特徵이 보인다. 따라서 型式學的으로는 Ba1類→Ba2類→Ba3類라는 組列을 생각할 수 있는데, 刺突·押引文系土器群과의 連續性 및 Aa文樣群과의 關係를 考慮할 때, Ba1類→Ba2類→Ba3類라는 型式變化의 方向을 想定할 수 있다. 그것을 文樣要素의 變化에 注目해서 보면 短斜集線文과 刺突點列文(Ba1·Ba2類)→刺突點列文과 連續刺突文(Ba3類), 口緣部 形態의 變化에 注目하면 內灣 내지 直立(Ba1類)→直立(Ba2類)→直立 내지 外反(Ba3類)이라는 順序[39]가 나타나며 Ba1類→Ba2類→Ba3類라는 型式變化가 連續的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Ba4類에 관해서는 文樣要素가 短斜線文으로 單純化되거나 文樣帶 幅이 縮小化되는 點에서 Ba3類와 區別되는 것인데, Ba2類와 Ba3類의 型式的 連續性을 勘案하면 Ba3類에 後續하는 文樣變異로 把握할 수 있다. 그런데 口緣部가 二重口緣으로 된 Ba3′類나 Ba4′類의 發生에 대해서는 型式學的으로 어떻게

38) Ba1·Ba2類의 斷續的인 斜行短斜集線文의 系列에 속하는 Ba3類의 文樣變異로서는 外反하는 口緣部를 無文樣帶로서 남기고 그 밑에 斷續的인 斜行短斜集線文이나 多齒具를 斜位로 짧게 땅긴 文樣이 施文된 土器가 該當한다고 생각되지만 分明하지 않다.

39) 이러한 口緣部 形態의 變化過程에 대해서는 이미 鳳溪里遺蹟의 調査成果(沈奉謹 1989)에서도 指摘되고 있는 것이다.

說明할 수 있을까? 口緣部의 二重口緣化에 관해서 그것과 型式學的으로 가까운 Ba3·Ba4類를 보았을 때, 口緣部 形態가 外反 내지 直立하고 있으며 그 部分을 옆으로 강하게 물손질하고 있다는 點을 큰 特徵으로서 들 수 있다[40]. 이것은 그 部分을 無文樣帶로 意識的으로 남기려고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Ba2類의 그것과는 區別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意識이 보다 强調되는 方向으로 作用한 結果, 口緣部의 二重口緣化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41]. 즉, Ba3′類·Ba4′類는 각각 Ba3類·Ba4類에서 派生한 것으로 把握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整理하면 Ba類에 관해서는 口緣部 直下부터 多條의 短斜集線文을 口緣部文樣帶에 施文한 것(Ba1類)→口脣部 바로 밑에 약간의 空白을 띄우고 그 下位에 多條의 短斜集線文 내지 刺突點列文을 施文한 것(Ba2類)→口緣部에 강한 橫方向의 물손질을 가해서 意識的으로 空白部(無文樣帶)를 만들고 그 아래쪽에 多條의 刺突點列文 내지 連續刺突文을 施文한 것(Ba3類)→口緣部에 意識的으로 無文樣帶를 만들고 1~3條 程度의 短斜線文이 施文된 것(Ba4類)라는 큰 흐름을 생각할 수 있고, 派生的으로 나타나는 口緣部의 二重口緣化라는 現象도 함께 생각한다면 結果的으로 Ba1類→Ba2類→Ba3類(→Ba3′類)→Ba4類(→Ba4′類)라는 變遷過程을 얻을 수 있다.

Bb類는 (太線)沈線에 의한 各種 集線文을 基本的 文樣形態로 한 것이다. Bb1類는 Ab類의 胴部文樣이 省略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Bb2類·Bb3類 등의 存在를 考慮할 때, Ba類에 대해서 想定한 것과 같은 文樣 變遷過程을 생각할 수 있다. 즉, Bb類에 관해서는 口脣部 直下부터 施文이 시작되는 것→口脣部 밑에 약간 空白部를 가진 것→口緣部를 옆으로 강하게 물손질해서 無文樣帶를 意識的으로 남긴 것, 즉 Bb1類→Bb2類→Bb3類이라는 變遷過程을 想定할 수 있다.

Bc類는 (太線)沈線에 의한 斜格子文을 基本的 文樣形態로 한 것인데 역시 Ac類의 胴部文樣이 省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c類에 관해서도 Ba類의 경우와 같이 Bc1類→Bc2類→Bc3類라는 變遷過程을 想定할 수 있다. Bc4類에

---

40) 口緣部가 外反하고 있는 點도 큰 特徵으로 들 수 있으나 Ba3·Ba4類 中에는 같은 文樣構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口緣部가 外反하는 것과 直立하는 것이 共存하고 있다. 그것을 時期差로 본다면, 本稿에서 想定한 Ba3類→Ba4類의 變遷過程이 옳다는 假定 下에서 直立口緣→外反口緣→直立口緣이라는 口緣部形態의 變化를 推定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可能性도 남기면서 그것보다도 重要하다고 判斷한 口緣部에 無文樣帶가 出現하는 變化에 注目해서 二重口緣의 發生 背景에 대해서 言及한 것이다.

41) 鉢形土器가 外反口緣에서 二重口緣으로 型式變化하는 過程에 대해서는 이미 李東注씨에 의해서도 指摘되고 있다(李東注 1991).

관해서는 Bc3類와 같이 平行斜線이 交差되게 施文되어 斜格子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의 平行斜線만이 施文된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42]. 따라서 Bc3類의 文樣形態의 簡略化된 것으로 보고 Bc3類→Bc4類라는 順序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口緣部가 二重口緣化된 Bc3′類나 Bc4′類에 관해서도 각각 Bc3類 및 Bc4類에서 派生된 것으로 본다면, Bc1類→Bc2類→Bc3類(→Bc3′類)→Bc4類(→Bc4′類)라는 變遷過程을 想定할 수 있다.

Bd類는 (太線)沈線에 의한 橫走魚骨文을 基本的 文樣形態로 한 것이다. Bd1類는 口緣部 直下에서 施文을 시작하고 있고 全體的인 文樣은 Ad類와 흡사하지만 Ad類에서 口緣部文樣帶와 胴部文樣帶를 區別하고 있는 것을 Bd1類에서는 區別하고 있지 않다는 差異가 있다. 이것도 역시 口緣部 直下에서 施文하고 있는 Bd1類 외에, 口脣部에 약간의 空白部를 가진 Bd2類, 口緣部에 意識的으로 空白部를 남기게 된 Bd3類가 存在하고 있으며, Bd1類→Bd2類→Bd3類라는 變遷過程을 생각할 수 있다[43]. 그런데 Bd1類 中, 底部까지 文樣이 施文되고 있는 것과 底部를 無文樣으로 해서 胴體下部까지 施文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型式學的으로 보면 Bd2類의 文樣構成에 보다 가까운 後者가 前者보다 後出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同時期에 있어서도 部分的으로 文樣의 一部가 省略되는 일은 充分히 豫想되기 때문에 그것이 時期的으로도 늦은 것이라고는 斷定지을 수 없는 것이다.

Be類는 縱方向으로 平行하게 施文된 水平短沈線文을 基本으로 하는 것이다. 水平短沈線을 單位로 하여 縱方向으로 여러 줄 施文되고 있는데 左右의 列에 서로 變化를 가지게 한 結果로서 縱走魚骨文化된 것도 같은 文樣變異로서 把握할 수 있다. Be類에 관해서도 다른 文樣變異와 같이 施文이 시작되는 位置에 따라서 Be1類→Be2類라는 順序를 생각할 수 있으며, 口緣部가 二重口緣化된 Be2′類에 관해서는 다른 文樣變異의 變遷過程을 參考로 해서 Be2類에서 派生 혹은 한 段階를 더 두고 變化한 것으로 생각된다.

---

42) 이러한 型式 變化過程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安春培씨가 江樓里遺蹟 槪報 中에서 分類한 斜格子文櫛目文土器II(斜格子文의 交差하는 한쪽 斜線이 다른 한쪽 斜線을 分斷해서 그 斜線이 短沈線 내지 弧線狀으로 된 것. 安春培 1981, pp.13, l.16~23)을 들 수 있다(廣瀨雄一 1989, pp.45, 右l.17~19에서 再引用.). 이 斜格子文에서 分斷하는 쪽의 斜線만이 남은 것이 平行斜線으로 된 것으로 생각된다.

43) Bd類에는 口緣部가 二重口緣化한 것이 設定되고 있지 않다. 그것은 文樣變異의 設定에는 아직 資料的으로 不充分하기 때문이지만, 大田 宋村洞遺蹟에서 出土된 二重口緣의 下位에 沈線에 의한 橫走魚骨文이 施文된 土器片(朴淳發·李亨源 1999, 圖面 3-5)이 그것에 該當되는 資料일 可能性이 있다. 宋村洞遺蹟에서의 出土例를 勘案할 때 앞으로 文樣變異로서의 設定(Bd3′類)이 可能하다고 생각된다.

Bf類는 斜行凹凸文(雷文)을 基本的인 文樣變異로 하고 斜位의 ㄷ字形文이나 鳥羽文 등도 包含된다. Bf1類는 文樣要素가 短斜集線文에 의해서 施文된 것이며 口脣部 直下에서 施文이 시작된 것과 口緣部에 一定한 空白을 두고 施文된 것의 2가지가 보인다. 한편, Bf2類는 Bf1類의 文樣要素가 沈線 혹은 短沈線化된 것이며 역시 口脣部 直下부터 施文된 것과 空白을 두고 施文된 것이 存在하고 있다. 그리고 Bf3類는 文樣形態가 斜行凹凸文이나 斜位의 ㄷ字形文이 아니라 短沈線에 의한 鳥羽文으로 된 것이며 斜行凹凸文이나 斜位의 ㄷ字形文이 簡略化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Bf1~3類가 다른 文樣變異와 같이 口脣部 直下에서 施文을 開始하는 것에서 空白部를 띄우고 그 밑에 施文되는 것으로 變化했다고 假定한다면 文樣要素로서 短斜集線과 (短)沈線이 共存했던 것이 된다. 그러나 Bf1類와 Bf3類의 文樣形態를 比較했을 때, 兩者는 型式學的으로 약간 距離가 있으며, Bf2類를 사이에 놓으면 Bf1類→Bf2類→Bf3類의 方向으로 短斜集線의 沈線化·文樣形態의 簡略化라는 過程으로서 보다 自然스럽게 型式의 變遷過程을 理解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Bg類에 관해서는 원래 Bg類로 設定한 文樣變異들이 기타 文樣變異와 型式學的으로 關係지우면서 類型化하기 어려운 것들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그 變遷過程을 提示하기 어려운 狀況이다. 하지만 各 文樣變異를 比較해 보면, Bg1類·Bg2類의 短沈線 혹은 刺突點列, 沈線에 의한 山形文이라는 文樣形態에 共通性을 엿볼 수 있고, Bg1類의 垂下된 刺突點列文帶와 Bg1′類의 二重口緣 肥厚部 밑에 垂下된 비슷한 文樣形態나 口緣部에 刺突點列文을 施文하고 있는 點, Bg2類의 口緣部 附近의 沈線 山形文과 Bg2′類의 口緣 肥厚部 上에 沈線 山形文·X字文이 施文되고 있는 點 등에도 共通點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以上의 共通點을 勘案할 때, 確實하지는 않지만 Bg類의 各 文樣變異 사이에는 어떤 關聯性이 있다고 볼 수 있다.

以上, 型式設定한 各 文樣變異를 型式學的으로 檢討해서 變遷過程을 想定해 보았다. 먼저 이들 文樣變異는 文樣構成의 큰 特徵에서 複合文樣群과 單獨文樣群으로 나뉠 수 있었으며, 다시 그것을 文樣要素·文樣形態·文樣構成, 口緣部 形態 등의 屬性을 基準으로 細分할 수 있었다. 그리고 細分된 各 文樣變異를 型式學的으로 檢討한 結果, 그들은 다시 文樣要素 및 文樣形態의 特徵의 共通性에 따라서 몇 가지 系列로 整理할 수 있었다. 想定된 各 文樣變異의 系列들은 複雜하기 때문에 다시 整理해 두면 다음과 같다.

A群系列 : Aa1類(→Aa1′類)·Aa2類→Aa3類, Ab·Ac類, Ad類
Ba類系列 : Ba1類→Ba2類→Ba3類(→Ba3′類)→Ba4類(→Ba4′類)
Bb類系列 : Bb1類→Bb2類→Bb3類
Bc類系列 : Bc1類→Bc2類→Bc3類(→Bc3′類)→Bc4類(→Bc4′類)
Bd類系列 : Bd1類→Bd2類→Bd3類
Be類系列 : Be1類→Be2類(→Be2′類)
Bf類系列 : Bf1類→Bf2類→Bf3類

이 變遷過程을 볼 때, 各 文樣變異가 系列을 다르게 하면서도 基本的으로 口脣部 直下에서 施文이 시작되는 것→口緣部에 약간의 空白部를 가진 것→口緣部의 空白部를 意識的으로 남긴 것 및 口緣部를 二重口緣으로 만든 것이라는 큰 흐름에 따라서 變化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變遷過程은 어디까지나 型式組列의 型式變化 順序를 想定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것이 반드시 時間的 先後關係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各 變遷過程의 系列의 關係를 型式學的 檢討만으로 밝히는 것에는 限界가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다음에는 型式學的 檢討結果와 遺蹟에서의 出土狀況을 통해서 土器의 變遷過程을 檢討하도록 한다.

(2) 地域別 土器의 變遷過程

여기서는 앞에서 型式學的으로 想定한 文樣變異의 變遷過程을 出土樣相을 통해서 檢討하고자 한다. 檢討對象으로 한 遺蹟은 發掘調査된 遺蹟들 中에서 比較的 出土狀態가 良好한 것들을 選擇하고, 아직까지 檢討 作業에 充分한 資料가 提示되고 있지 않는 西南部地方에 관해서는 먼저 檢討하는 東南部地方·中南部地方에서의 樣相을 參考로 하면서 檢討하기로 한다.

東南部地方

東南部地方에서는 東三洞貝塚이나 新岩里遺蹟, 岩南洞貝塚 등 일찍부터 알려졌던 遺蹟들이 比較的 많이 있는 反面, 그들 中에서 報告된 資料들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近年의 發掘調査를 통해 資料들의 蓄積이 있었던 샘이다. 이 地域에서 土器編年의 가장 基本이 되고 있는 것은 硏究史 部分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水佳里貝塚의 調査成果이다. 그러나 最近에 들어 그 水佳里編年에 대한 再檢討의 必要性이 主張되고 있다는 點은 注目해야 할 일이다[4]. 따라

서 먼저 水佳里編年의 再檢討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水佳里貝塚에서의 層位別 文樣變異 出土狀況을 나타낸 것이 第1表이다(第1表). 먼저 A文樣群에 관해서 Ⅵ層에서 出土되고 있는 Aa1′·Aa2·Aa3類 등 口緣部文樣帶에 短斜集線文, 胴部文樣帶에 橫走魚骨文이 施文된 土器들이 Ⅴ-Ⅵ·Ⅴ層에서는 出土되지 않고, 그 대신에 Ⅴ-Ⅵ·Ⅴ層에서는 Ab·Ac

型式 / 層位	複合文樣群						
	Aa1	Aa1′	Aa2	Aa3	Ab	Ac	Ad
Ⅰ							
Ⅱ							
Ⅲ							
Ⅲ-Ⅳ							
Ⅳ							
Ⅳ-Ⅴ							
Ⅴ					1	1	
Ⅴ-Ⅵ					3		
Ⅵ		1	1	1	(1)		1

型式 / 層位	單獨文樣群															
	口脣部 直下에서 施文開始					口脣部 약간 밑에서 施文開始					口緣部에 空白部 形成					
	Ba1	Bb1	Bc1	Bd1	Be1	Ba2	Bb2	Bc2	Bd2	Be2	Ba3	Ba4	Bb3	Bc3	Bc4	Bd3
Ⅰ												1				
Ⅱ												2				
Ⅲ							1						(1)			
Ⅲ-Ⅳ							1									
Ⅳ	(1)		1				3	5								
Ⅳ-Ⅴ							1	1								
Ⅴ	1	2	1	(1)			1	3								
Ⅴ-Ⅵ	1	3	(1)													
Ⅵ	(2)															

型式 / 層位	單獨文樣群											備考
	二重口緣							기타				
	Ba3′	Ba4′	Bc3′	Bc4′	Be2′	Bg1′	Bg2′	Bf1	Bf2	Bf3	Bg1	Bg2	
Ⅰ		1											無文樣 多數
Ⅱ		2		4			(1)					1	無文樣 多數
Ⅲ												1	外反口緣
Ⅲ-Ⅳ												1	
Ⅳ													
Ⅳ-Ⅴ													
Ⅴ													
Ⅴ-Ⅵ													
Ⅵ													刺·押

( )는 不確實한 것.

刺·押 : 刺突·押引文系土器群

第1表 水佳里貝塚 層位別 文樣變異 出土狀況

44) 李東注 1997, 崔鍾赫 2000

類라는 口緣部文樣이 集線文·斜格子文으로 된 土器가 出土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과 同時에 單獨文樣群에 있어서 口緣部 直下부터 施文을 시작하는 Ba1·Bb1·Bc1類가 새로 나타나며 水佳里Ⅱ期 前半으로 編年된 Ⅳ層에 걸쳐서 複合文樣群이 消失되고 口緣部에 약간 空白部가 생기는 Bb2·Bc2類가 中心이 되는 變化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變化는 一面에서는 水佳里編年의 水佳里Ⅰ期(前葉→中葉→後葉)→水佳里Ⅱ期 前半이라는 圖式의 妥當性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型式學的 系列로서 보았을 때, Aa1(Aa1′)·Aa2類에서 口緣部從屬이나 附加文으로서 施文된 集線文·斜格子文이 Aa3類의 段階에서는 일단 사라지고 그것이 Ab·Ac類에서 다시 出現해서 Bb2·Bc2類로 變化한 것으로 되어 Aa1(Aa1′)·Aa2類→Bb2·Bc2類의 變遷過程을 型式學的으로 說明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것에 관해서는 역시 型式學的으로 說明한 바와 같이 變遷過程에 있어서 複數의 系列이 同時에 存在했을 可能性을 생각하는 것이 보다 矛盾點 없이 現象을 說 明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口緣部從屬文이나 附加文으로서 施文되었던 集線文·斜格子文이 口緣部文樣帶의 文樣形態인 短斜集線文과 同義로 理解되었기 때문에 그들 文樣形態가 短斜集線文과 同時에 施文되게 된 것이다. 이것은 口緣部文樣帶에 短斜集線文을 施文해야 한다는 規制가 강한 中西部地方에 대해 南部地方에서는 口緣部와 胴部文樣帶를 區分하는 點은 一致하고 있어도 口緣部文樣帶에 施文되는 文樣形態의 選擇 幅은 보다 넓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刺突·押引文系土器群의 傳統 때문에 일어난 現象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Ⅵ層에서 口緣部文樣帶에 梯形集線文이 施文된 Ab類 (혹은 Bb1類)가 出土되고 있는 點에서도 充分히 說明할 수 있고, 또 器面全體에 橫走魚骨文을 施文하면서도 施文되는 魚骨文의 沈線 길이를 다르게 해서 口緣部文樣帶와 胴部文樣帶를 區分한 Ad類에 관해서도 같은 脈絡으로의 理解가 可能하다.

그것과 비슷한 樣相을 層位的으로 나타내고 있는 다른 遺蹟으로서 凡方貝塚을 들 수 있다(第2表). 凡方貝塚 H pit는 最下層에 隆起文土器가 出土되는 H-Ⅸ層(全體層位의 13層에 相當)이 位置하며 그 上位에 沈線文系土器群을 包含하는 土層이 서서히 堆積되고 있는데, 그 過程에 있어서 傾斜面의 위쪽에서 6層의 堆積土로 推定되는 土層이 2次堆積된 堆積狀況을 나타내고 있다[45]. 土層

45) H pit와 다른 pit 사이의 層位的 關係에 대해서는 H pit의 土層 堆積過程에 있어서 全體層位의 6層이라고 생각되는 土層의 流入 現象이 斷續的으로 認定되는 點에서 H pit의 各 層이 6層보다도 늦은 것일 可能性도 있다. 그러나 土層 斷面圖에서는 H pit Ⅰ層 上位에 6層이 堆積되고 있기 때문에 6層의 形成時期는 H pit의 各 層이 堆積된 時期를 抱括하는 長期間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推定된다.

型式 / 層位	複合文様群						
	Aa1	Aa1′	Aa2	Aa3	Ab	Ac	Ad
1				(2)			
2							
3							
4				1			
5	2			(4)	1(1)		
6	2			2(4)	(2)		
H-Ⅰ							
-Ⅱ				(1)			
-Ⅲ							
-Ⅳ					(2)		
-Ⅴ				(2)	1		
-Ⅵ	1			(2)	5(5)		
-Ⅶ	(1)			(2)			
-Ⅷ	(1)						
-Ⅸ							

型式 / 層位	單獨文様群															
	口脣部 直下에서 施文開始					口脣部 약간 밑에서 施文開始					口緣部에 空白部 形成					
	Ba1	Bb1	Bc1	Bd1	Be1	Ba2	Bb2	Bc2	Bd2	Be2	Ba3	Ba4	Bb3	Bc3	Bc4	Bd3
1												1				
2												10				
3																
4																
5	1					(1)					1		1			
6	2	1											1	1		
H-Ⅰ																
-Ⅱ			(1)													
-Ⅲ																
-Ⅳ																
-Ⅴ			1													
-Ⅵ																
-Ⅶ																
-Ⅷ																
-Ⅸ																

型式 / 層位	單獨文様群												備考
	二重口緣							기타					
	Ba3′	Ba4′	Bc3′	Bc4′	Be2′	Bg1′	Bg2′	Bf1	Bf2	Bf3	Bg1	Bg2	
1													
2		1				2						2	
3													無遺物層
4												1	
5													隆, 刺·押
6													隆, 刺·押
H-Ⅰ													
-Ⅱ													刺·押
-Ⅲ													
-Ⅳ													隆, 刺·押
-Ⅴ													
-Ⅵ													隆, 刺·押
-Ⅶ													
-Ⅷ													隆, 刺·押
-Ⅸ													隆

( )는 不確實한 것. 隆 : 隆起文系土器群. 刺·押 : 刺突·押引文系土器群.

第2表 凡方貝塚 層位別 文様變異 出土狀況

斷面圖에서는 傾斜面 方向에 따라서 H-Ⅸ層 上面이 急激히 떨어진 部分에 上位層이 堆積되고 있는 狀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아마도 해일 등의 波蝕에 인해 생긴 斷崖部에 投棄 혹은 自然堆積된 것으로 把握할 수 있다. 報告者는 H-pit의 各 層에서 出土된 土器들 사이에 型式的으로 그다지 많은 差異를 認定할 수 없다는 것에서 比較的 短期間에 堆積된 것으로 報告하고 있는데, 그 出土狀況에서는 Aa3類(혹은 Ba1類)가 H-Ⅶ~Ⅰ, 6~4層까지 出土되고 있는 것에 대해 Aa1類는 H-Ⅷ~Ⅵ層에서 일단 消失하고 그것과 交代로 Ab·Bb1·Bc1類가 H-Ⅵ~Ⅰ, 6·5層까지 出土되고 있다는 것을 指摘할 수 있다. 그것에 관해서 新岩里遺蹟에서의 出土狀況(第3表)을 보면 Aa1·Aa1′·Aa2類는 出土되고 있지 않고 Aa3·Ab類가 出土되고 있는데, 이 樣相이 바로 凡方貝塚에서 指摘한 樣相의 後半段階를 나타낸 것으로, 다른 遺蹟에서도 비슷한 樣相을 確認할 수 있다. 즉, Aa1·Aa1′·Aa2類와 Ab·Ac類는 一時的으로 共存하면서도 先後關係를 가지고 出現하며 크게는 Aa1·Aa1′·Aa2類가 나타나는 段階→Aa1·Aa1′·Aa2類와 Aa3類가 같이 使用된 段階→Aa3類와 Ab·Ac類가 같이 使用된 段階→Ab·Ac類가 中心的으로 使用된 段階로 變化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變化가 口緣部從屬文樣의 文樣形態가 口緣部文樣帶의 文樣形態로서 認識되어가는 過程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以上의 水佳里貝塚과 凡方貝塚에서의 出土樣相을 통해서 볼 때, 앞의 A群系列에 관해서

Aa1·Aa1′·Aa2類——————-
-——————Aa3類——————-
-——————Ab·Ac類——————-
-——————Ad類——————-

라는 變遷過程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Aa1·Aa1′·Aa2類에 관해서는 刺突·押引文系土器群 Ⅳ段階의 土器들과 一時的으로 共存했을 可能性도 생각할 수 있으며, 刺突·押引文系土器群 Ⅳ段階의 口緣部文樣帶의 文樣形態와 Aa1·Aa1′·Aa2類의 口緣部從屬文 및 附加文 사이에 많은 共通點이 보인다는 것은 서로 文樣形態의 影響關係가 있지 않았을까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推定할 수 있다. 이것은 南部地方 刺突·押引文系土器群의 土器相에 中西部地方 沈線文系土器群의 文樣形態인 刺突點列帶로 施文된 絡繩帶文이나 刺突重弧文[46]과

46) 이러한 文樣單位들은 中西部地方 大同江流域 深鉢形 Ac·B3·B4類 文樣變異 및 漢江流域·京畿灣地域 深鉢形 Ab類 文樣變異나 埦形·壺形土器의 文樣單位로서 使用되고 있다(田中聰一 1999).

흡사한 文樣形態들이 간혹 보이기 때문이며[47], 刺突·押引文系土器群 마지막 段階에는 이미 中西部地方에서 그러한 文樣形態가 存在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B文樣群에 관해서는 水佳里貝塚의 出土狀況(第1表)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口脣部 直下부터 施文이 시작된 것(Ba1·Bb1·Bc1類)→口緣部에 약간 空白部가 생긴 것(Bb2·Bc2類)→口緣部에 意識的으로 空白部를 만든 것(Ba4·Bb4類)·二重口緣으로 만든 것(Ba4′·Bc4′·Bg2′類)이라는 變遷過程을 層位的으로 確認할 수 있다. 이러한 變化過程에 관해서는 이미 指摘되고 있는 內容인데, 그것과 Ⅲ層 및 Ⅰ·Ⅱ層 사이의 差異를 함께 注目해 보면 口緣部에 意識的으로 空白部를 만든 것→口緣部를 意識的으로 空白部로 만든 것 및 二重口緣으로 만든 것이라는 變化도 指摘할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型式學的으로 想定한 Ba·Bb·Bc類系列에 관해서 層位的으로도 檢證할 수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48]. Bd1類는 그 可能性이 있는 것이 Ⅴ層에서 出土되고 있지만 이것은 口緣部 破片인 것으로 Ad類일 可能性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各 變遷過程의 系列 사이의 時期的 關係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 앞에서 型式學的으로 說明한 바와 같이 Ba1·Bb1·Bc1·Bd1, Ba2·Bb2·Bc2·Bd2類, Ba3·Ba4·Bb3·Bc3·Bc4·Bd3類, Ba3′·Ba4′·Bc3′·Bc4′類는 각각 文樣構成 上에 있어서 비슷한 文樣構成을 가진 것들이며 時期的으로도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型式學的으로 보았을 때, Ba1·Bb1·Bc1類는 각각 Aa3·Ab·Ac類에서 派生된 것으로 想定할 수 있다는 點과 A文樣群의 文樣變異 사이의 時期的 關係를 參考로 하면

Ba1類————-
-————Bb1·Bc1類————-

라는 關係를 想定할 수 있다. 이러한 關係는 水佳里貝塚 Ⅵ~Ⅴ層의 樣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Bd1類에 관해서는 水佳里貝塚 Ⅴ層에서 그 可能性이 있는 土器片이 出土되고 있지만 東南部地方의 다른 遺蹟에서는 거의 出土되지 않는 것에서 文樣變異로서는 그다지 流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진다[49]. 그

47) 이미 李東注씨에 의해서 注目되고 있는 바와 같이(李東注 1996, 圖81·83), 이러한 土器가 出土된 遺蹟으로서는 朝島貝塚·休岩里遺蹟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노래섬貝塚(李永德 2000, 圖面5-9·11·13)을 들 수 있다. 또 南部地方 刺突·押引文系土器群 Ⅳ段階에 보이는 短集線文 및 短斜集線文도 그러한 影響關係에서 나타났을 可能性이 크다.

48) 東南部地方에 있어서 이들 모든 文樣變異가 確認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中의 一部는 앞으로 調査의 進展에 따라서 새로 發見될 可能性도 있는 한편, 中南部地方이나 西南部地方과의 地域差를 나타내는 要素가 되는 것도 있다.

49) 全面施文 橫走魚骨文土器에 관해서 中西部地方에서는 2部位文樣構成이라는 文樣規制의 弱

리고 各 系列의 다음 段階인 Ba2·Bb2·Bc2類에 관해서는 東南部地方에서 Ba2類의 出土가 確實하지 않지만 Bb2·Bc2類는 水佳里貝塚 Ⅴ~Ⅳ層에서 共伴해서 出土되고, Ba3·Bb3·Bc3類는 資料的으로는 약간 不充分하지만 凡方貝塚 5·6層에서 함께 出土되고 있다. 이것은 Bb2·Bc2類와 Ba3·Bb3·Bc3類가 각각 同時期의 土器相으로서 存在했을 可能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型式學的 檢討도 加味하면 Bb2·Bc2類→Ba3·Bb3·Bc3類라는 相對的 關係는 納得할 수 있다. 그리고 Ba4類는 水佳里貝塚에서 Bb3類, 凡方貝塚에서 Ba3·Bb3·Bc3類보다 각각 上層에서 出土되고 있는 것에서 그들보다도 늦은 段階에 編年할 수 있다. 또 Bc4類에 관해서는 이 地域에서의 出土例가 별로 없기 때문에 確實하지 않지만, 型式學的으로는 Bc3類에 後續하는 文樣變異이며, 역시 型式學的으로 거의 同時期로 생각되는 Bc4′類가 水佳里貝塚에 있어서 Bb3類가 出土되고 있는 Ⅲ層보다도 上層인 Ⅱ層에서 Ba4·Ba4′類와 함께 出土되고 있는 한편, Ba4·Ba4′類가 主體를 이루고 있는 栗里貝塚에서는 出土되고 있지 않다는 點은 그 編年的 位置를 생각하는데 參考가 된다(第5-6表). 마지막으로 Bg1·Bg2類에 관해서는 水佳里貝塚 및 凡方貝塚에서는 Bg2類만, 梧津里遺蹟 및 栗里貝塚에서 Bg1·2類가 出土하고 있어서, 兩 文樣變異 사이에는 出土樣相의 相關性이 그다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Bg2類가 Bb類의 集線文 系列의 延長線上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Bg1類 中, 특히 短斜線·刺突에 의해서 區劃文이나 水平의 點列文과 山形文을 組合한 것(第4圖 19·20)등은 Ba4類의 系列로서 理解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時期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文樣構成과 栗里貝塚 및 梧津里遺蹟에서의 出土例를 參考로 하면, Bg2類가 Bb2類 내지 Bb3類에 後續해서 약간 앞 段階부터 나타나며 Bg1類와 一時 共存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兩 文樣變異에 山形文이라는 文樣形態가 共通的으로 보이는 點에서도 指摘할 수 있다.

그리고 二重口緣土器에 관해서는 Ba4′·Bc3′·Bc4′·Bg1′·Bg2′類 등이 確認되고 있는데, Ba4′·Bc3′·Bc4′類는 型式學的으로 각각 Ba4·Bc3·Bc4類에서 派生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다. 그것을

化라는 觀點에서 把握하였는데(田中聰一 1999) 南部地方에 있어서는 그 出現過程 自體가 中西部地方과 다르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本文 中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南部地方에서는 刺突·押引文系土器群의 文樣單位와 全面施文이라는 2가지 要素가 합친 것으로 理解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全面施文 橫走魚骨文土器라도 中西部地方과 南部地方에서는 時期差가 當然히 있을 것이며, 같은 文樣構成을 中西部地方에서는 同一文樣構成, 南部地方에서는 單獨文樣構成이라고 다르게 부른 理由도 거기에 있는 것이다.

出土樣相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Bc3′類는 最近의 調査에서 花木洞遺蹟이나 梧津里遺蹟에서 出土되고 있는데(第3·4表) 다른 文樣變異들과의 時期的 先後關係에 관해서는 分明하지 않다. 그러나 Bc3類의 編年的 位置를 생각하면 Bc4′類와 同時期 내지 그것에 약간 先行하며, Ba4′類보다는 앞서는 것으로 判斷된다. 그런데 앞에서 Bb3·Bc3類를 거의 같은 時期로 보는 立場을 提示했는데, 胴體上部文樣帶의 文樣이 沈線으로 施文되고 있는 點에서는 서로 共通되고 있지만 口緣部形態의 二重口緣化에 注目하면 Bc3類에는 二重口緣化된 Bc3′類가 存在하는 것에 대해서 Bb3類는 二重口緣化되지 않았다는 差異點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Bc3類에는 Bb3類와 共存한 段階와 Bb3類가 消失한 後에 Bc3′類와 共存한 段階로 나뉘어질 可能性이 있다. 한편 Bg1′·Bg2′類에 관해서도 具體的이지 못하지만 水佳里貝塚·凡方貝塚·栗里貝塚에서 Ba4′類 등과 같이 出土되고 있다는 點에서 그 編年的 位置를 생각할 수 있다[50].

型式 / 遺蹟	複合文樣群						
	Aa1	Aa1′	Aa2	Aa3	Ab	Ac	Ad
新岩里				1	5(10)		
花木洞							
栗里							

型式 / 遺蹟	單獨文樣群															
	口脣部 直下에서 施文開始					口脣部 약간 밑에서 施文開始		口緣部에 空白部 形成								
	Ba1	Bb1	Bc1	Bd1	Be1	Ba2	Bb2	Bc2	Bd2	Be2	Ba3	Ba4	Bb3	Bc3	Bc4	Bd3
新岩里	2		1				(2)							1		
花木洞							(1)						(1)			
栗里	1(1)							2(2)				6(9)	(2)	1		

型式 / 遺蹟	單獨文樣群												備考
	二重口緣							기타					
	Ba3′	Ba4′	Bc3′	Bc4′	Be2′	Bg1′	Bg2′	Bf1	Bf2	Bf3	Bg1	Bg2	
新岩里													隆, 刺·押
花木洞			5				2						隆?, 無文樣 多數
栗里		6				2	1				8	8	無文樣 多數

( )는 不確實한 것.
隆 : 隆起文系土器群
刺·押 : 刺突·押引文系土器群

第3表 新岩里遺蹟·花木洞遺蹟·栗里貝塚 文樣變異 出土狀況

50)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이 梧津里遺蹟에서의 出土樣相인데, 거기서는 Bg1′·Bg2′類가 出土된 II層의 上面에서 住居址가 設置되고 있다. 그 住居址 內部에서는 Bb2·Bc2·Bc4·Bc3′類가 出土되고 있는 것에서 文樣變異의 變遷過程을 層位學的으로 配列하면, Bg1′·Bg2′類→Bc3′類라는 順序가 된다. 報告者는 이것을 二重口緣土器의 發生과 關聯시켜서 說明하고 있는데(鄭澄元 외 1994) 그 경우 本稿에서 試圖한 型式學的 分析結果와 矛盾點이 나타나게 된다. 그 部分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課題로 삼고자 한다.

型式 / 層位	複合文様群						
	Aa1	Aa1′	Aa2	Aa3	Ab	Ac	Ad
Ⅰ							
住							
Ⅱ							
Ⅲ		1		1	(3)		

型式 / 層位	單獨文様群															
	口脣部 直下에서 施文開始					口脣部 약간 밑에서 施文開始					口緣部에 空白部 形成					
	Ba1	Bb1	Bc1	Bd1	Be1	Ba2	Bb2	Bc2	Bd2	Be2	Ba3	Ba4	Bb3	Bc3	Bc4	Bd3
Ⅰ														1		
住							2(1)	4(1)							1	
Ⅱ			(2)					8						1		
Ⅲ	3(2)	5(1)	1(1)					4								

型式 / 層位	單獨文様群											備考
	二重口緣							기타				
	Ba3′	Ba4′	Bc3′	Bc4′	Be2′	Bg1′	Bg2′	Bf1	Bf2	Bf3	Bg1	Bg2	
Ⅰ											2		
住			2										刺·押
Ⅱ						5	4(1)					1	
Ⅲ													隆, 刺·押

( )는 不確實한 것.
隆 : 隆起文系土器群
刺·押 : 刺突·押引文系土器群

第4表 梧津里遺蹟 Ⅰ~Ⅲ層 層位別 文様變異 出土狀況

以上, 檢討한 內容을 土臺로 鉢形土器 以外의 器種에 관해서도 出土狀況이나 型式學的 特徵을 함께 考慮해서 東南部地方 沈線文系土器群 및 二重口緣土器群을 編年한 것이 第5圖이다(第5圖).

中南部地方

얼마 前까지 해도 中南部地方의 遺蹟은 주로 海岸地域의 貝塚遺蹟에 한해서 調査가 이루어졌다. 이들 大部分의 遺蹟에서는 攪亂現象 때문에 不確實하거나 斷片的인 資料의 出土에 그치는 實情이어서 그 樣相을 充分히 把握하기 어려운 狀況이었다. 그런데 1980年代 後半의 陜川댐 水沒地區에 대한 發掘調査를 契機로 해서 壬佛里遺蹟·大也里遺蹟·鳳溪里遺蹟 등 聚落遺蹟에 대한 調査가 實施됨에 따라서 內陸地域의 新石器時代 遺蹟에 대해서도 많은 關心이 가지게 되었다. 그 가운데에서 中南部地方 內陸地域과 주로 東南部地方 海岸地域의 差異를 問題삼아서 海岸地域과 內陸地域의 土器文化의 差異, 나아가서는 內陸地域의 獨自性이 主張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中南部地方 內陸地域에서는 극히 限定된 資料에서 地域性이 指摘된 것이었기 때문에, 海岸地域과 內陸地域의 그러한 差異가 나타난 時期나 그 過程에 대해서는 여전히 不確實한 狀態이었다. 그런데 最近에 들어, 一部 刺突·押引文系土器群을 包含해서 沈線文系土

器群 段階부터 二重口緣土器群 段階에 이르는 聚落遺蹟이 松竹里遺蹟[51]과 上村里遺蹟[52]에서 調査되어 그 問題를 論議할 수 있는 資料들이 마련되었다. 그러한 調査成果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旣存 資料들과 함께 近年에 確認된 새로운 資料들을 통해서 東南部地方에서 檢討한 結果를 參考로하면서 土器의 編年問題를 다루기로 한다.

上村里遺蹟에서는 모두 22基의 新石器時代 住居址로 推定되는 竪穴遺構들이 調査되었는데[53], A文樣群에 關聯되는 良好한 資料들이 多數 出土되었다. 이들은 出土 土器의 特徵에서 크게 3가지 群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出土土器의 文樣構成이 複合文樣群과 單獨文樣群으로 되는 1群과 單獨文樣群만으로 構成된 것들 中에서 二重口緣土器의 出土가 確認되지 않는 2群, 그리고 같은 單獨文樣群만으로 構成된 것들 中에서 二重口緣土器가 包含되는 3群이다[54]. 各 群에 속하는 遺構들 사이에는 土器의 出土狀況에 있어서 약간의 差異가 認定되었지만 다른 群을 設定할 수 있을 程度의 差異가 아니다. 各 遺構群마다 文樣變異의 出土狀況을 나타낸 것이 第5表이다(第5表).

型式 / 遺構	複合文樣群						
	Aa1	Aa1′	Aa2	Aa3	Ab	Ac	Ad
1群	25(4)	6(1)	2	24(6)	5(11)	(2)	1
2群							
3群							

型式 / 遺構	單獨文樣群															
	口脣部 直下에서 施文開始					口脣部 약간 밑에서 施文開始					口緣部에 空白部 形成					
	Ba1	Bb1	Bc1	Bd1	Be1	Ba2	Bb2	Bc2	Bd2	Be2	Ba3	Ba4	Bb3	Bc3	Bc4	Bd3
1群	25(2)	16(2)	2				1(1)									
2群							2				6(1)		2(2)	11(1)	1	
3群	2							1			5(1)		1(1)	12		

型式 / 遺構	單獨文樣群											備考
	二重口緣							기타				
	Ba3′	Ba4′	Bc3′	Bc4′	Be2′	Bg1′	Bg2′	Bf1	Bf2	Bf3	Bg1	Bg2	
1群								12(2)					刺·押
2群										2			
3群	1		7							3			

( )는 不確實한 것.

刺·押 : 刺突·押引文系土器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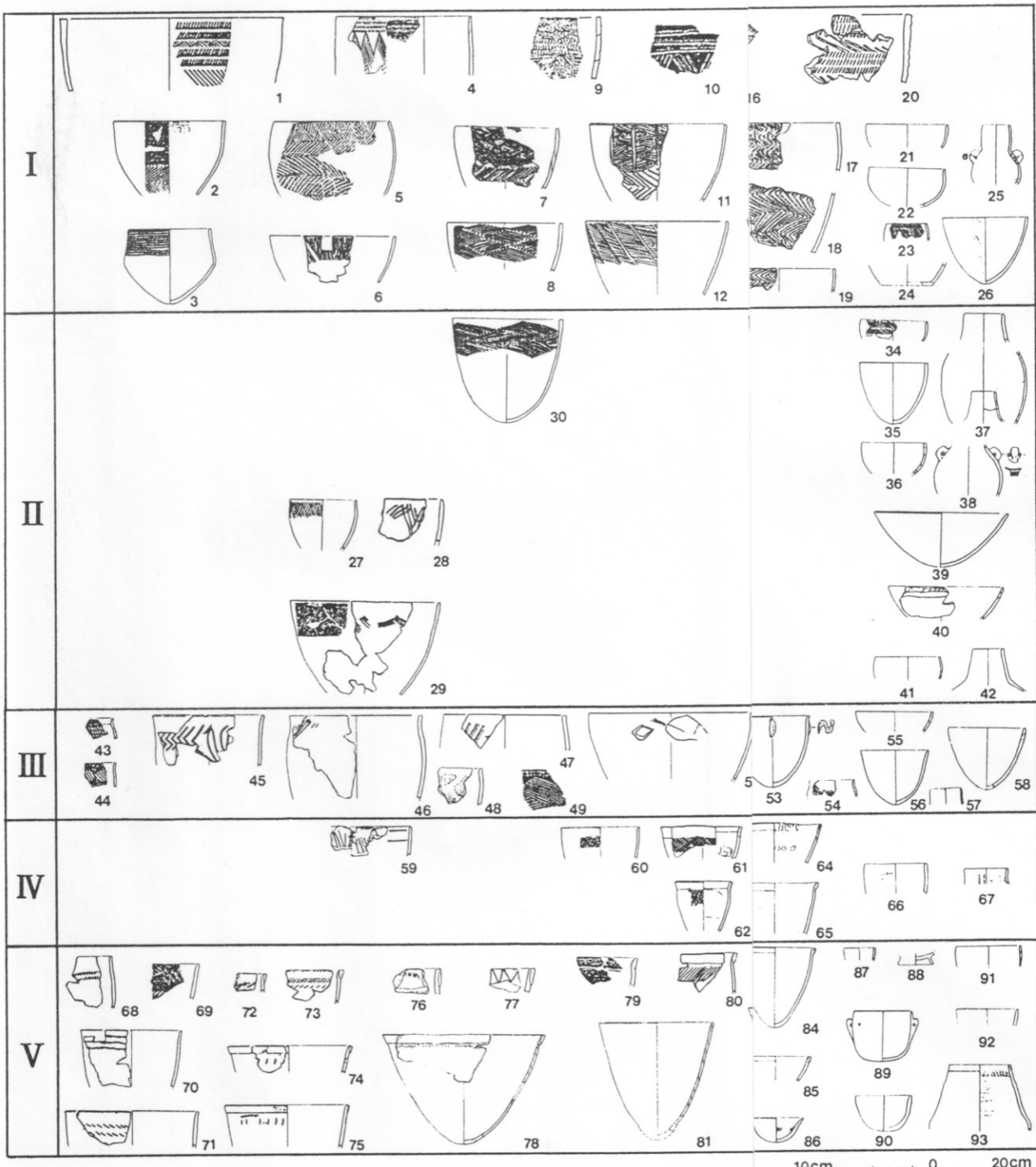
第5表 上村里遺蹟 遺構別 文樣變異 出土狀況

51) 啓明大學校博物館, 金陵松竹里遺蹟, (1994)

52) 沈奉謹 1998, 李東注 2000b

53) 기타 新石器時代의 遺構로서는 溝狀遺構·大型 積石遺構·野外爐址로 推定되는 集石遺構 및 地床爐址·性格이 不確實한 竪穴遺構群 이외에 靑銅器時代 住居址 등도 調査되었다.

54) 各 遺構에서의 出土樣相과 出土點數는 遺物整理 過程에 있어서 筆者가 集計한 結果임으로 正式報告書의 記載內容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明記해 둔다.



第 5 圖 東南部地方 沈線文系土器群・二重口緣土

土器群・二重口緣土器群에 대하여 3

이 表를 통해서 1群의 遺構에서는 A文樣群에 속하는 모든 文樣變異가 出土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느 特定한 文樣變異가 어느 特定 遺構에서 集中的으로 出土되는 出土樣相이 아니라 1群에 속하는 모든 遺構에서 비슷한 出土傾向을 確認되었다. 이것은 住居址 內部에서 出土된 遺物들이 住居 使用期間 동안 同時에 使用된 것이 아니라 住居의 使用過程 내지 廢棄 後에의 埋沒過程에서 混入된 遺物들도 存在한다는 點을 考慮하더라도 그 全體에서 비슷한 出土傾向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各 遺構의 使用과 廢棄가 서로 가까운 時期에 이루어지고, 遺構 出土 土器들이 전혀 다른 時期에 使用된 것이 아니라 서로 同時期 혹은 가까운 時期에 使用되었을 可能性이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以上과 같은 出土狀況을 통해 볼 때, 上村里遺蹟은 東南部地方에서 想定된 A文樣群의 變遷過程 中에서도 이른 段階에 속하는 遺蹟이라고 할 수 있고, 比較資料가 不充分해서 아직 斷言할 수 없으나 A文樣群에 관해서는 東南部地方과 中南部地方 사이에서 거의 같은 變遷過程을 거쳤다고 想定할 수 있다.

다음에 B文樣群에 관해서 살펴보면 上村里遺蹟 1群 遺構에서 Ba1·Bb1·Bc1·Bb2·Bf1類가 出土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2群 遺構에서는 Bb2·Ba3·Bb3·Bc3·Bc4·Bf3類, 3群 遺構에서는 Ba1·Bc2·Ba3·Bb3·Bc3·Ba3′·Bc3′·Bf3類가 出土되고 있다. 이 出土狀況과 型式學的 檢討結果를 함께 생각해 보면, 1群 遺構에서는 A文樣群에 속하는 多樣한 文樣變異가 出土되었는데 그것들과 Ba1·Bb1·Bc1·Bf1類가 共伴關係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55] Bf1類의 存在 以外는 東南部地方과 거의 같은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2群과 3群 사이에는 口緣部가 二重口緣化된 Ba3′·Bc3′類의 有無 以外에는 큰 差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東南部地方의 檢討 結果에서는 크게 1群→2群→3群의 順序로 變化한 것으로 確認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參考로 하면 2群 段階에는 Bb2·Ba3·Bb3·Bc3·Bc4·Bf3類, 3群 段階에는 (Ba1·Bc2·)Ba3·Bb3·Bc3·Ba3′·Bc3′·Bf3類[56] 文樣變異가 共伴關係에 있었을 可能性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型式學的으로 Ba1·Bb1·Bc1類와 Ba3·Bb3·Bc3類 사이에 位置한다고 생각되는 Ba2·Bb2·Bc2類에 관해서는 上村里遺蹟의 出土樣相만으로는 共伴關係를 알아보기 힘든 狀況이다. 그것에 대

55) 鳳溪里遺蹟에서는 Ba1·Bb1·Bd1類가 出土되고 있지만 橫走魚骨文이 施文된 土器片이 전혀 出土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出土狀況은 Ba1·Bb1·Bc1·Bd1類가 A文樣群과 共伴되는 時期와 共伴되지 않는 時期로 나뉘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56) 3群 遺構에서 出土된 Ba1類 등에 관해서는 다른 時期의 遺物의 混入일 可能性이 높다.

해서 牧島里貝塚과 大也里遺蹟에서의 出土樣相을 살펴보면(第6表), 牧島里貝塚 Ⅰ·Ⅱ層에서는 Ba3·Bb3類라는 上村里遺蹟 3群 段階에 相當하는 遺物도 약간 出土되고 있는데 Bb2·Bc2·Bf2類가 出土되고 있고, 大也里遺蹟 8號 竪穴에서는 Ba2·Bb2·Bc2類가 出土되고 있다. 이것은 資料的으로 약간 不充分한 部分도 있으나 Ba2·Bb2·Bc2·Bf2類가 共伴하는 한 時期의 存在를 나타내고 있으며, 型式學的으로 Ba2·Bb2·Bc2類가 Ba1·Bb1·Bc1類와 Ba3·Bb3·Bc3類 사이에 位置하고 Bf2類가 Bf1類와 Bf3類 사이에 位置하는 것과도 附合하고 있다. 한편, 上村里遺蹟의 2群 遺構와 3群 遺構에 각각 相當하는

型式 / 遺蹟	複合文樣群						
	Aa1	Aa1′	Aa2	Aa3	Ab	Ac	Ad
牧島里							
大-8							
大-23							
壬佛里							
鳳溪里							
江樓里							
舊坪里							

型式 / 遺蹟	單獨文樣群															
	口脣部 直下에서 施文開始					口脣部 약간 밑에서 施文開始					口緣部에 空白部 形成					
	Ba1	Bb1	Bc1	Bd1	Be1	Ba2	Bb2	Bc2	Bd2	Be2	Ba3	Ba4	Bb3	Bc3	Bc4	Bd3
牧島里							5				1		2(3)	(3)		
大-8						2	(3)	1(1)								
大-23											1		(1)	(1)		
壬佛里						1(1)	1	3(1)			28(4)	(2)	14(18)	17(26)	2	1(3)
鳳溪里	(3)	1(3)		(1)		2(1)	1				92(20)	2	14(19)	66(74)	13(1)	2
江樓里											13(7)		1(2)	4(15)	(1)	
舊坪里											3	29(24)	(2)	5(7)		

型式 / 遺蹟	單獨文樣群											備考
	二重口緣							기타				
	Ba3′	Ba4′	Bc3′	Bc4′	Be2′	Bg1′	Bg2′	Bf1	Bf2	Bf3	Bg1	Bg2	
牧島里									1				刺·押
大-8													
大-23										1			
壬佛里										6			隆
鳳溪里		1	11	3						3		3(1)	
江樓里			2							1			
舊坪里		(1)								1(1)	4	5	無文樣 多數

( )는 不確實한 것.
隆 : 隆起文系土器群
刺·押 : 刺突·押引文系土器群

第6表 中南部地方 主要遺蹟別 文樣變異 出土狀況

(牧島里貝塚에 관해서는 Ⅰ·Ⅱ層 出土資料, 大也里遺蹟에 관해서는 8號 竪穴(大-8)과 23號 住居址(大-23) 出土資料에 한해서 使用.)

것이 壬佛里遺蹟·大也里遺蹟 23號 住居址 出土資料와 鳳溪里遺蹟·江樓里遺蹟 出土資料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 Ba3·Bb3·Bc3類를 主體로 하고 그 以外에 Bc4·Bd3·Bf3類 등도 약간 出土된 遺蹟들이지만 後者에서는 二重口緣土器인 Ba3′·Bc3′·Bc4′類가 出土되고 있다. 여기서 二重口緣土器가 出土되고 있지 않는 壬佛里遺蹟과 그것이 出土되고 있는 鳳溪里遺蹟 사이의 Ba3·Bb3·Bc3類의 出土數에 注目하면 壬佛里遺蹟과 鳳溪里遺蹟에서 Bb3類의 出土點數는 그다지 差異가 없는 것에 비해 Ba3·Bc3類는 鳳溪里遺蹟에서 相當히 많은 點數가 出土되고 있다는 것을 指摘할 수 있다. 그것과 二重口緣土器에는 斜格子文이 施文된 例가 많이 보이는 反面, Bb2類와 같은 集線文系統의 文樣이 施文된 例가 보이지 않는 點을 함께 생각한다면, 東南部地方에서도 推定한 것과 같이 Ba3·Bb3·Bc3類에 관해서 二重口緣土器가 共伴되지 않는 段階와 共伴되는 段階가 있었음을 推定할 수 있다. 그리고 舊坪里貝塚에서의 Ba4類의 出土狀況은 Ba4類가 Ba3·Bb3·Bc3·Bc4類와는 時期的으로 差異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型式學的 特徵이나 水佳里貝塚에서의 出土狀況을 參考로 하면 Ba4類가 Ba3·Bb3·Bc3·Bc4類보다도 늦은 段階에 編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確認된 資料로서는 分明하지 않지만 Ba4類의 口緣部가 二重口緣化된 Ba4′類에 관해서도 같은 結果임을 말할 수 있다. 以上, 檢討한 內容을 整理해 보면 B文樣群에 관해서 Ba1·Bb1·Bc1·Bf1(·Bf2)類→Ba2·Bb2·Bc2·Bf2類→Ba3·Bb3·Bc3·Bd3·Bf3類→Ba3(·Bb3)·Bc3·Bc4, Ba3′·Bc3′·Bc4′類→Ba4·Ba4′類라는 變遷過程을 想定할 수 있다.

여기서 注目하고 싶은 것은 Ba類系列에 관해서 中南部地方에서 Ba1→Ba2→Ba3類라는 型式變化過程이 確認되는 點과 Bf類系列의 存在이다. 특히 Ba2類는 東南部地方의 같은 段階라고 생각되는 水佳里Ⅱ式土器 안에서 찾을 수 없는 文樣變異이며, 後期 段階의 海岸地域과 內陸地域의 地域差를 나타내는 土器樣式으로 設定된 鳳溪里式土器에 特徵的인 文樣變異 中의 하나인 Ba3類가 中南部地方에서 出現했을 可能性이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Bf類에 관해서도 東南部地方에서 아직까지 出土例가 없는 文樣變異인데 비해 Bf3類 역시 鳳溪里式土器에서는 特徵的인 文樣變異인 鳥羽文이다. 從來, 水佳里貝塚을 代表로 하는 東南部地方에 있어서는 口緣部에 意識的으로 空白部를 만든 Ba3·Bb3·Bc3·Bc4·Bd3類의 資料가 貧弱하여 그것이 中南部地方 內陸地域과 東南部地方 海岸地域의 地域差로서 指摘될 根據가 되었는데 最近의 發掘成果에서는 凡方貝塚이나 梧津里遺蹟을 비롯하여 그 段階에 該當되는 資料가

아직까지는 少數이지만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Ba3·Bb3·Bc3·Bc4·Bd3類의 段階(소위 鳳溪里式土器 段階)가 中南部地方과 東南部地方, 內陸地域과 海岸地域에서 거의 同時期라고 編年된다고 하더라도 以上과 같은 出土 現況은 鳳溪里式土器가 系統的으로 中南部地方 土器樣式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以上의 檢討 結果를 土臺로 中南部地方 沈線文系土器群 및 二重口緣土器群을 編年한 것이 第6圖이다(第6圖). 여기서는 鉢形土器 以外의 器種에 관해서도 出土狀況이나 型式學的 特徵을 考慮해서 함께 提示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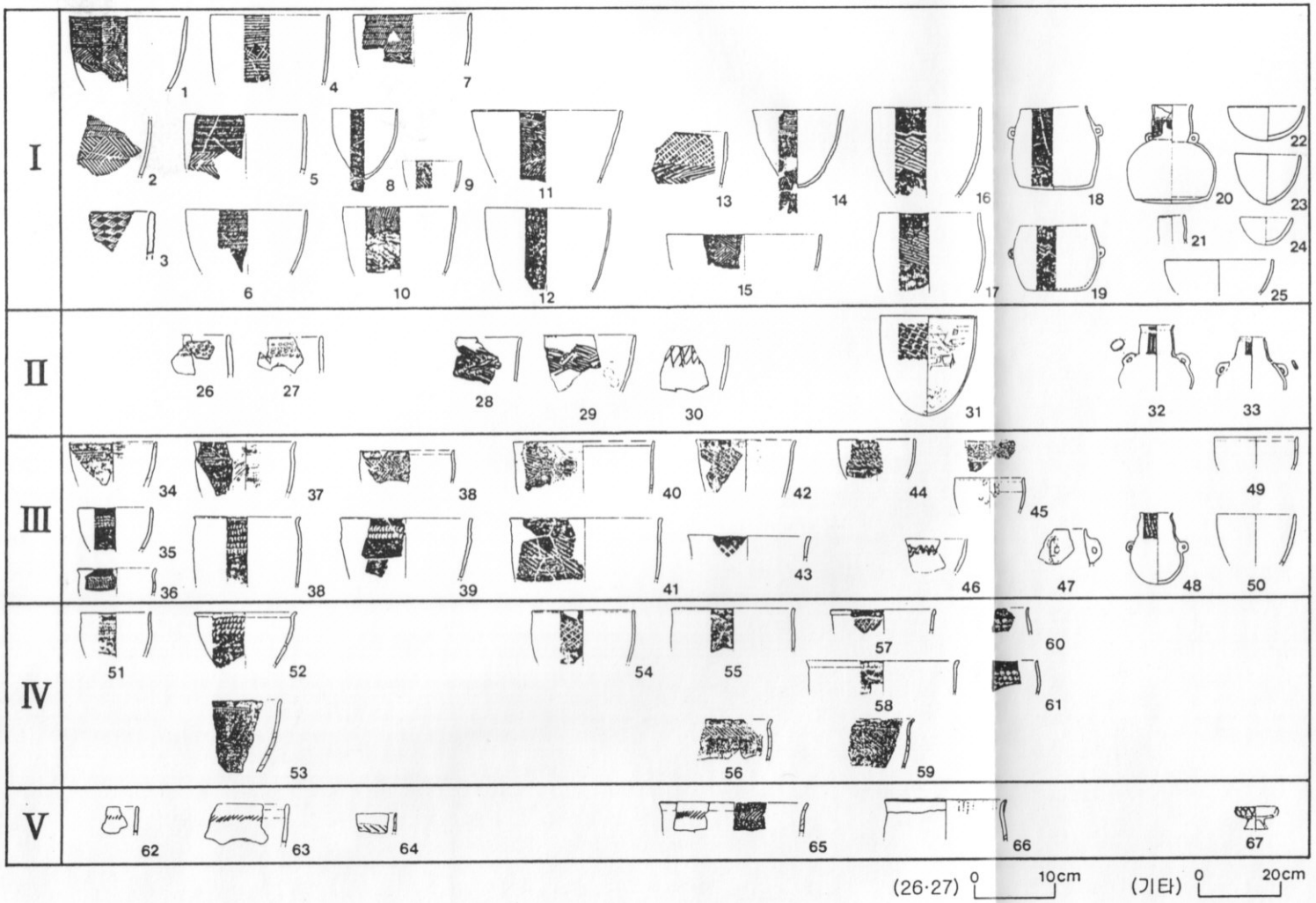
西南部地方

西南部地方에서는 最近까지만 해도 發掘調査를 통해서 出土된 資料가 거의 없는 狀況이었고, 1990年代 以後 雙淸里遺蹟[57]·屯山遺蹟[58]·駕島貝塚[59]·노래섬貝塚[60]·飛鷹島貝塚·갈머리遺蹟[61] 등의 遺蹟들이 調査되고는 있지만 그 內容을 알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一部分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地域의 樣相을 明確히 할 수 없을 만큼 아직 資料的으로 充分하지 않는 現況이다. 여기서는 西南部地方 遺蹟에서의 出土狀況을 檢討한 뒤(第7表), 東南部地方 및 中南部地方에서의 土器 變遷過程을 參考로하면서 當該 地域에서의 沈線文系土器群 및 二重口緣土器群 變遷過程을 提示하고자 한다.

먼저 A文樣群에 관해서는 屯山遺蹟과 갈머리遺蹟 1號 住居址에서 數點씩 出土되고 있는데 現時點에서는 全體的 樣相을 알기 힘들다[62]. 그러나 文樣構成으로 보아서 東南部地方이나 中南部地方에서 出土되고 있는 資料들과 거의 差異가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西南部地方도 다른 地域과 비슷한 樣相이 앞으로 確認될 것으로 생각된다.

B文樣群은 各 遺蹟마다 出土樣相에 差異點이 認定되는데 다른 地域에서의 檢討 結果에서 그것이 時期差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西南部地方에 관해서도 다른 地域과 비슷한 土器 變遷過程인 것을 豫想할 수 있다. 西南部地

57) 申鐘煥 1993
58) 忠南大學校博物館 1995
59) 忠南大學校博物館 1994
60) 李永德 2000
61) 李永德 2001
62) 기타 노래섬貝塚 가地區에서 (Aa1·)Aa2·Aa3, Ba1·(Bd3′·)Ba4·Ba4′類 등이 出土되고 있는데(李永德 2000) 發掘調査 報告書가 發刊되면 그 樣相을 보다 確實히 알 수 있을 것이다.



第 6 圖 中南部地方 沈線文系土器群・二重口緣土器群 變遷過程

方에서 특히 注目되는 것은 Bd類系列과 Be類系列의 文樣變異가 多數 存在하고 있다는 點이며 그것들은 東南部地方이나 中南部地方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文樣構成이다. 이것은 소위 「錦江式土器[63]」라고 불리고 있는 肩部에 斜行 短斜集線文이 施文된 獨特한 形態의 內灣口緣 埦이 東南部地方의 地域性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雙淸里遺蹟 4號 住居址와 屯山遺蹟에서의 出土狀況을 比較하면 雙淸里遺蹟 4號 住居址는 屯山遺蹟과 갈머리遺蹟 1·2號 住居址形土器와 함께에서 出土되고 있는 A文樣群 및 Ba1·Bb1類 文樣變異 등의 口脣部 直下에서 施文이 시작되는 것들을 除外한 나머지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 역시 B文樣群에 관해서도 다른 地域과 비슷한 脈絡으로 理解할 수 있다는 것을 暗

型式 / 遺蹟	複合文樣群						
	Aa1	Aa1′	Aa2	Aa3	Ab	Ac	Ad
屯山	1				1		
雙淸里							
갈-1					1		
갈-2							
갈-14							
갈	1			1(4)	1(3)		

型式 / 遺蹟	單獨文樣群															
	口脣部 直下에서 施文開始					口脣部 약간 밑에서 施文開始					口緣部에 空白部 形成					
	Ba1	Bb1	Bc1	Bd1	Be1	Ba2	Bb2	Bc2	Bd2	Be2	Ba3	Ba4	Bb3	Bc3	Bc4	Bd3
屯山		3					30	1					25	4		
雙淸里							1	1			(1)		1			
갈-1		1										1				
갈-2	1															
갈-14												3			(1)	
갈				(1)			(1)				4			2		

型式 / 遺蹟	單獨文樣群												備考
	二重口緣							기타					
	Ba3′	Ba4′	Bc3′	Bc4′	Be2′	Bg1′	Bg2′	Bf1	Bf2	Bf3	Bg1	Bg2	
屯山													
雙淸里													
갈-1										4			
갈-2													
갈-14		1											
갈								1					

( )는 不確實한 것.
隆 : 隆起文系土器群
刺·押 : 刺突·押引文系土器群

第7表 西南部地方 主要遺蹟別 文樣變異 出土狀況

(雙淸里遺蹟에 관해서는 4號 住居址 出土資料에 한해서 使用.)

63) 申鍾煥 1995

示하고 있지만 雙淸里遺蹟 4號 住居址에서 Bb2·Bc2·Bd2·Be2類와 Bb3類가 함께 出土되고 있다는 點은 注目할 必要性이 있다. 이것이 다른 時期의 遺物들이 混在한 것이 아니라 同時期에 使用된 것이라고 積極的으로 생각한다면 Bb3類 文樣變異가 成立한 後에도 繼續해서 Bb2·Bc2·Bd2·Be2類가 使用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즉, 西南部地方에서는 口緣部를 意識的으로 空白으로 남긴 Bb3·Bc3·Bd3類 文樣變異가 內部的인 型式變化의 結果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아마 中南部地方)에서의 影響을 받고 變化한 것으로 理解할 수도 있는 것이다.

以上의 檢討 結果에서 西南部地方 沈線文系土器群 및 二重口緣土器群의 變遷過程에 관해서 鉢形土器 以外의 器種에 대해서도 出土狀況이나 型式學的 特徵을 考慮하면서 나타낸 것이 第7圖이다(第7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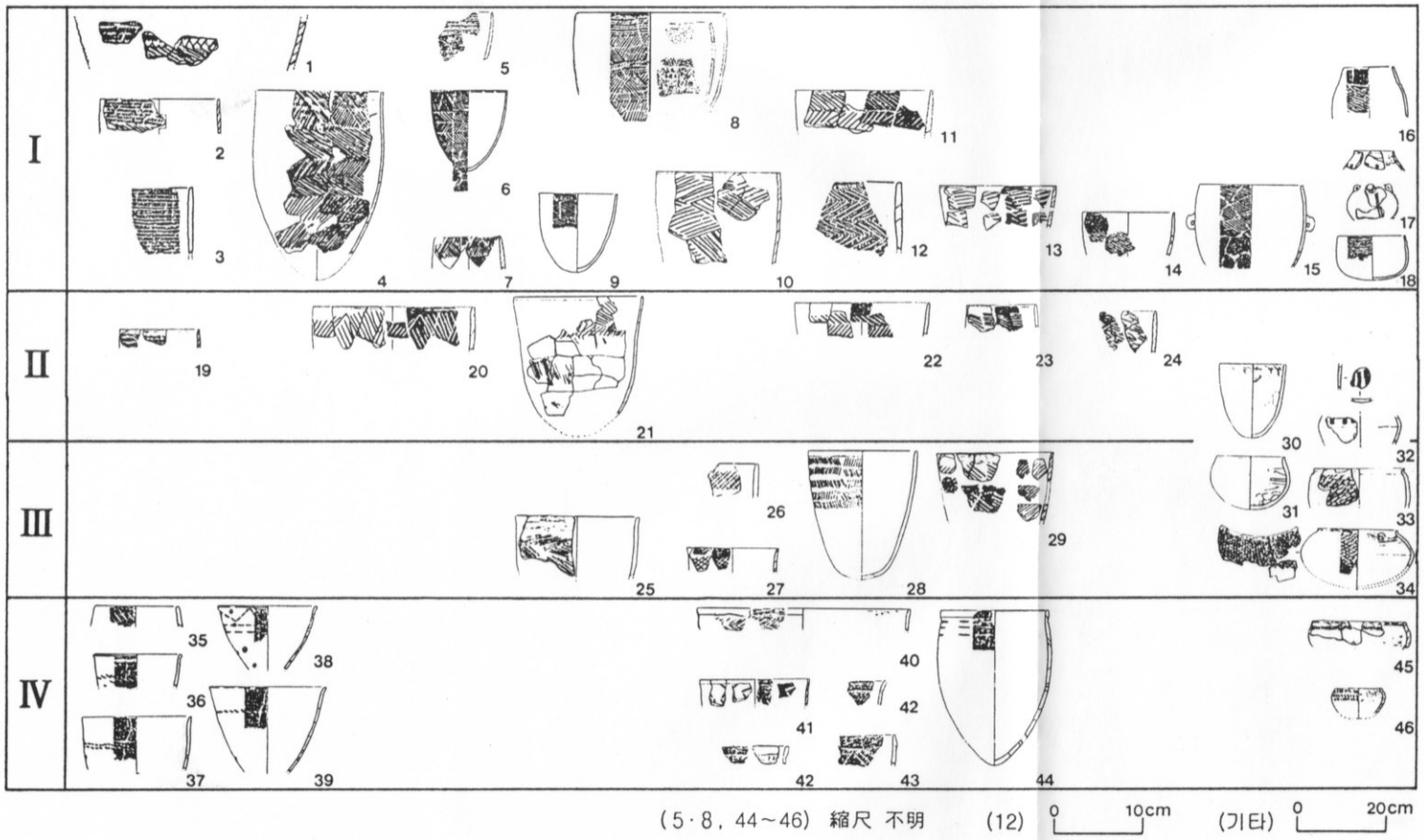
(3) 南部地方 沈線文系土器群·二重口緣土器群의 變遷過程

앞에서는 東南部地方·中南部地方·西南部地方의 地域別로 編年을 檢討했는데 여기서는 南部地方 全體의 時期的 竝行關係를 생각하면서 南部地方 沈線文系土器群·二重口緣土器群의 變遷過程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Ⅰ段階

各 地域의 Ⅰ段階는 全面施文의 沈線文土器의 出現을 基準으로 그 以前時期의 土器 樣式群인 刺突·押引文系土器群과의 劃期를 設定할 수 있다. 이 變化는 南部地方 刺突·押引文系土器群 後半段階에 있어서의 南部地方뿐만 아니라 中部地方(中西部地方·中央部地方·中東部地方)을 包含한 넓은 範圍內에서의 交流關係를 背景으로 이루어졌을 可能性이 크다. 그것은 南部地方 初期 沈線文系土器群의 文樣形態 中, 口緣部從屬文이나 口緣部 附加文에 刺突·押引文系土器群의 文樣形態와 흡사한 要素들이 많이 보이고[64], 南部地方 刺突·押引文系土器群 段階의 몇 군데 遺蹟에서 中西部地方 沈線文系土器群에 特徵的인 文樣形態인 刺突點列帶 絡繩帶文(타래무늬)이나 刺突重弧文과 類似한 文樣形態가 施文된 土器가 出土되거나[65], 그 後半段階에는 口緣部에 短集線文·短斜集線文이 施文된 土器 등이 보이는 것[66]에서 어느 程度 推定할 수 있다. 따

64) 李東注 2001
65) 李東注 1996
66) 田中聰一 1998



第 7 圖 西南部地方 沈線文系土器群·二重口緣土器群 變遷過程

라서 從來 南部地方 沈線文系土器群의 出現을 中西部地方에서의 一方的인 文化波及으로서 理解되어왔는데 實際로는 中部地方[67]과 南部地方의 相互交流속에서 口緣部從屬文樣帶나 口緣部附加文에 여러 集線文이 施文된 土器(Aa1·Aa2·Aa1′類[68])가 成立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中央部地方·中東部地方에서의 樣相은 아직까지 不分明하지만 全面施文 沈線文土器가 이미 存在했었던 中部地方쪽에서 Aa1·Aa2·Aa1′類가 약간 일찍이 出現되었을 可能性은 있어도 中部地方·南部地方에서 거의 時期差 없이 使用된 土器型式이라고 할 수 있다. 沈線文系土器群이 出現하기 直前, 南部地方 刺突·押引文系土器群 Ⅳ段階의 鉢形土器의 文樣形態에는 在地의 土器傳統인 橫走魚骨文·集線文·斜格子文과 中部地方 土器와의 關係를 생각할 수 있는 短集線文·短斜集線文이라는 複數 系列이 存在했었는데, 그러한 土器傳統이 沈線文系土器群의 變化過程에 있어서 적지 않게 影響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Aa1·Aa2·Aa1′類가 南部地方에 出現한 後, 口緣部文樣帶에 短斜集線文·集線文·斜格子文·橫走魚骨文을 施文한 Aa3·Ab·Ac·Ad類가 成立하는데 이들이 바로 刺突·押引文系土器群의 傳統을 이어받은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A文樣群에 관해서는 앞에서 Aa1·Aa2·Aa1′類, Aa3類, Ad類가 共存하는 段階→Aa1·Aa2·Aa1′類, Aa3類, Ab·Ac類, Ad類가 共存하는 段階→Aa3類, Ab·Ac類, Ad類가 共存하는 段階→Ab·Ac類 單獨 段階라는 큰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各 文樣變異의 胴部文樣이 省略된 Ba1·Bb1·Bc1類도 同時에 存在했었을 可能性이 있다. Ba1·Bb1·Bc1類의 存在 역시 刺突·押引文系土器群의 文樣構成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結局에는 口緣部文樣帶에만 文樣이 施文된 Ba1·Bb1·Bc1類가 土器相의 中心이 되는 段階를 지나서[69] 다음 Ⅱ段階로 移行하게 된다. 이 사이의 變化過程은 漸移的이며 中東部地方에서 確認되고 있는 것과 같이 遺構마다의 出土樣相을 통해서 앞으로 時期의 細分이 可能하다고 豫想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한 段階로 設定해 두겠다. 이 段階의 南部地方 안에서의 地域差는 거의 없으나 Bf類 文樣變異(第6圖 16·17, 第7圖 15·16)·反復刺突文[70](第6圖 20)이 中南部地方을 中心으로 出

67) 여기서는 口緣部從屬文에 集線文系 文樣이 施文된 土器의 出土例가 아직까지 없는 中西部地方 大同江流域地域은 除外하고 있다.

68) 이들 가운데 第2圖의 3·4·8에 관해서는 中西部地方的인 要素라고 할 수 있다.

69) 이 口緣部에 만 文樣이 施文되는 段階의 單純遺蹟은 아직까지 調査된 例가 없지만 鳳溪里遺蹟에서의 出土樣相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0) 주로 壺形土器의 口緣部文樣으로서 施文되는 反復刺突文에 관해서는 刺突·押引文系土器群 後半段階의 壺形土器(田中聰一 1998, 第13圖)와의 關係가 있다고 생각되며 頸部形態가 內

土되며[71], 西南部地方에서만 出土되는 Be1類 文樣變異(第7圖 13), 壺形土器(第5圖 25, 第6圖 20, 第7圖 16~18), 埦形土器(第7圖 19) 등의 要素에 있어서 약간의 地域色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平底의 把手附 鉢形 및 壺形土器(第6圖 18·19·20)의 存在도 이 段階의 特徵으로서 注目되는데[72], 특히 壺形土器에 관해서는 東南部地方에서 繼續的으로 無文樣을 特徵으로 하는 것에 대해 中南部地方에서는 口緣部施文, 西南部地方에서는 口緣部와 胴體上部에 施文된다는 差異點이 看取된다. 以上 Ⅰ段階의 土器 出土樣相을 살펴본 結果, 크게 보아서 南部地方에서는 비슷한 土器 樣式의 分布가 確認되는데 자세한 特徵을 比較하면 中南部地方과 西南部地方사이에 東南部地方보다도 類似點이 많이 있음을 指摘할 수 있다. 이러한 地域的인 特色은 刺突·押引文系土器群 段階에서의 地域樣式群의 差異나 周邊地域과의 交流關係의 結果로서 나타난 現象이라고 생각된다[73].

Ⅱ段階

Ⅱ段階는 Ⅰ段階 마지막 段階의 土器의 特徵을 繼承하고 口緣部에 文樣帶가 限定되면서도 施文이 口緣部에서 약간 떨어진 位置에서 시작되는 Ba2·Bb2·Bc2類 文樣變異를 特徵으로하는 時期이다. 이 段階의 南部地方 內部에서의 地域差는 앞 段階의 地域的 特徵을 그대로 繼承하는 形態로 나타나고 있는데, Ba2類(第6圖 26·27, 第7圖 19), Bf類(第6圖 31, 第7圖 24), 有文의 把手附 壺形土器(第6圖 32·33, 第7圖 17·32)의 存在는 中南部地方과 西南部地方에 共通하는 要素로서 나타나고, 그 안에서도 西南部地方의 地域的 特色으로서 Bd2·Be2類, 斜行短斜集線을 짧게 規則的으로 配置한 內彎口緣 椀形土器가 出土되고 있다는 點을 들 수 있다[74]. 東南部地方에서는 Bb2·Bc2類(第5圖 30~33)가 主要 文樣

灣하고 있다는 特徵도 서로 相通하고 있다. 그리고 鉢形土器도 包含해서 把手部의 附着라는 새로운 要素에 관해서는 李東注씨도 指摘하고 있는 바와 같이 中東部地方 刺突文系土器群(소위 鰲山里式土器)과의 關係를 생각할 수 있다.

71) Bf1類는 東三洞貝塚(L. L. Sample 1977, Plate 24 上-a), 反復刺突文 施文 壺形土器는 花木洞遺蹟(李映周외 2000, 圖面39-2)에서도 出土되고 있어서 앞으로 東南部地方 海岸地域에 있어서 類例가 增加할 可能性이 있으나 現時點에서는 그것이 搬入品일 可能性이 높다.

72) 東南部地方에서는 第5圖의 24, 西南部地方에서는 第7圖의 14가 그 土器일 可能性이 있다.

73) 東南部地方의 境遇에는 中南部地方, 中南部地方의 경우에는 中央部地方 南漢江流域, 西南部地方의 境遇에는 中西部地方과의 關係가 생각되며, 各 地域의 海岸地域사이 혹은 內陸地域사이의 交流도 地域性을 나타낸 要因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西南部地方 錦江上流域에 位置하고 있는 갈머리遺蹟에서는 雙淸里遺蹟·屯山遺蹟 등의 西南部地方的 特徵과 中南部地方의 金陵 松竹里遺蹟 出土土器의 一部 特徵이 함께 보이고 있다. 이것은 小白山脈을 넘는 交流가 新石器時代부터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좋은 例이다.

74) 西南部地方에서 Ⅱ段階에 속한다고 判斷되는 把手部 壺形土器와 內彎口緣 椀形土器는 아직

變異가 되며 앞 段階와 같이 無文 把手附 壺形土器(第5圖 38)가 出土되고 있다. 이 段階가 되면서 새로 大型의 壺形土器와 淺鉢形土器가 나타나는데 이들의 系譜에 대해서는 分明하지 않다. 大型의 壺形土器는 南部地方 刺突·押引文系土器群과 中東部地方 刺突文系土器群에도 存在하는 器種이며 Ⅰ段階에서의 存在有無가 確實하지 않지만 그들과의 關係도 생각할 수 있다. 또 Bb2·Bc2類에 관해서 水佳里貝塚에서의 出土樣相을 보면 Ⅴ層에서 Ⅲ-Ⅳ層에 걸쳐서 施文技法의 粗雜化와 沈線의 細線化라는 現象을 看取할 수 있다. 이러한 樣相은 다른 地域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Ⅲ段階

Ⅲ段階는 口緣部를 옆으로 강하게 물손질하는 것에 의해서 意識的으로 口緣部 無文樣帶를 만든 Ba3·Bb3·Bc3類 文樣變異가 特徵的이며 口緣部가 外反하는 소위 鳳溪里式土器의 成立을 特徵으로 하는 時期이다. 이 段階가 되면 各 地域에서 앞 段階에서의 土器傳統을 이어받은 土器와 함께 Ba3·Bb3·Bc3類 文樣變異로 代表되는 文樣이 施文된 齊一性이 높은 土器들이 出土되고 있고, 一部 中西部地方의 矢島貝塚[75]에서도 出土되고 있는 등, 廣域編年을 만들기 위한 基準이 될 수 있다. 이 鳳溪里式土器에 관해서는 앞에서 檢討한 바와 같이 現時點에서 Ⅰ段階의 土器樣式에서 鳳溪里式土器까지의 型式變化 樣相이 다른 地域보다 連續的으로 確認할 수 있는 中南部地方에서 成立했을 可能性이 높다. 따라서 中南部地方에서 Ⅲ段階의 시작이 다른 地域보다도 약간 先行했을 수 있고, 中南部地方에서 鳳溪里式土器가 成立한 後에 周邊地域으로 擴散되는 一定 期間 동안은 周邊地域에서 前 段階的 土器가 使用되었을 可能性도 생각할 수도 있으나 土器의 型式學的으로는 그 時期差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鳳溪里式土器는 中南部地方에서 가장 多樣한 型式이 確認되고 있으며 그러한 樣相에서도 이 地域이 樣式群의 中心일 可能性은 높은데 이 地域에서는 Ba3·Bb3·Bc3·Bd3·Bf3類를 中心으로 Bc4·Bd3·Bg2類 등이 出土되고 있다. 기타 器種으로서는 椀形土器·把手附 鉢形土器·把手附 壺形土器가 있다. 把手附 壺形土器는 Ⅰ段階(第6圖 20)에서 頸部에 反復刺突文이 施文되고 把手部가 頸部와 肩部의 屈折部에 位置한 平底土器이었던 것이 Ⅲ段階(同 48)에는 頸部文樣이 새로方向의 連續刺突文이나 沈線文으로 변하고 把手部가 胴體上部

不確實하다. 그러나 Ⅰ段階와 Ⅲ段階의 樣相을 比較하면 Ⅱ段階에도 같은 系列에 속하는 土器가 存在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75) 韓炳三 1970, 圖面 XXI

쪽으로 내려와서 底部形態도 圓底로 된다는 變化를 보이고 있다. 이 變化에는 Ⅱ段階의 壺形土器(第6圖 32·33)를 사이에 두고 段階的으로 變化하는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76]. 또 把手附 鉢形土器에 관해서도 Ⅰ段階의 것보다도 粗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등 鉢形土器 以外의 器種에서도 時期的 變遷過程을 看取할 수 있다. 東南部地方에서는 水佳里貝塚 Ⅲ層 段階가 같은 時期에 該當되는데 Ⅱ段階부터 이어지는 粗雜한 文樣과 口緣部의 外反이라는 屬性이 함께 보이고 있다. 水佳里貝塚에 있어서 當該 時期에 속하는 資料가 貧弱했던 것에서 內陸地域과 海岸地域의 地域差가 擧論된 바도 있는데 凡方貝塚(第5圖 43·44)이나 東三洞貝塚(同 49) 등을 비롯한 몇 군데 遺蹟에서 이 時期의 資料의 出土가 確認되고 있고 東南部地方에서도 Ⅲ段階가 한 時期로서 設定이 可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出土量은 적어서 土器相을 充分히 把握할 수 없는 程度이며 이러한 出土狀況이 앞에서 言及한 型式學的으로 確認할 수 없는 中東部地方과 東南部地方사이의 Ⅲ段階 시작 時期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을 可能性도 있다. 기타 器種으로서는 椀形土器와 無文樣 壺形土器가 있는데 Ⅱ段階에서 보인 淺鉢形土器의 出土는 確實하지 않다. 西南部地方에서는 Ⅱ段階와 Ⅲ段階를 確實히 區別하기 어렵고 雙淸里遺蹟 4號 住居址에서는 Bb2·Bc2·Bd2·Be2類 등 Ⅱ段階의 것들과 같은 特徵을 가진 土器와 Bb3類가 함께 出土되고 있다(第7圖 26~28, 30, 32~34). 이 住居址에서는 단지 한 個體分의 Bb3類가 出土되고 있을 뿐이지만 그것이 搬入된 것이었다고 해도 中南部地方에서의 擴散樣相을 어느 程度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77].

Ⅳ段階 以後

Ⅳ段階 以後의 樣相에 관해서 東南部地方과 中南部地方의 Ⅳ·Ⅴ期는 型式學的으로 西南部地方 Ⅳ期와 거의 竝行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西南部地方에서는 資料的 問題 때문에 크게 한 時期로 設定한 것이다. Ⅲ段階의 土器群과는 二重口緣의 出現을 基準으로 劃期의 設定이 可能하며 그 以前의 樣式群을 沈線文系土器群, 以後를 二重口緣土器群으로 한다. 그러나 口緣部의 二重口緣化라는 現象 以外의 沈線文系土器群에서 二重口緣土器群으로 變化過程에 있어서 土器의 屬性의 많은 部分에서 連續性을 찾을 수 있으며 樣式變化가 결코 斷

76) Ⅱ段階의 把手附 壺形土器의 文樣에는 새로方向의 反復刺突文(第6圖 32)과 連續刺突文(同 33)이 있으며 文樣의 變化에 있어도 中間的인 特徵을 나타내고 있다.

77) 물론 이러한 樣相은 現況에서의 出土狀況을 根據로 해서 判斷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調査의 進展에 따라서 보다 分明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絶的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變化樣相에서도 地域마다의 土器傳統을 反映한 地域差가 看取된다.

먼저 中南部地方의 樣相을 살펴보면 Ⅱ段階의 中心的인 文樣變異이었던 Ba3·Bb3·Bc3類 中, 口緣部가 二重口緣化하는 Ba3·Bc3類만이 이 段階에도 繼續해서 使用된 것으로 생각되며 그들과 二重口緣化된 Ba3′·Bc3′類가 이 段階의 主要 文樣變異가 된다. Bb3類가 이 段階에서 왜 消失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確實하지 않지만, Bc3類 文樣變異로서 三角形 區劃 內部에 斜格子文이 施文되는 것(第3圖 30)이나 斜格子文을 構成하는 沈線을 그은 順序를 바꾸고 文樣에 變化를 나타내는 것, 斜格子를 만든 部分과 平行斜線으로 남긴 部分으로 文樣에 變化를 가지게 한 것(同 32) 등, 斜格子文이 多樣化 樣相이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文樣形態에 있어서 集線文과 斜格子文의 區別이 없어졌을 可能性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Ba3·Ba3′類도 보다 簡略化되어 文樣帶 幅이 좁아지는 方向으로 變化하는 한편(第6圖 53), Bc3·Bc3′類의 斜格子文도 簡略化되어 Bc4·Bc4′類(同 56·59)로 變化하면서 Ⅴ段階의 Ba4·Ba4′類로 이어지는 型式變化가 이루어진다. 즉, Ⅴ段階의 Ba4·Ba4′類는 Ba3·Ba3′類와 Ba4·Ba4′類의 2가지 系列의 文樣變異에 後屬하는 型式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變化過程은 無文樣化에 隨伴하는 文樣의 單純化 現象으로서 理解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Ⅴ段階에는 이 Ba4·Ba4′類와 함께 無文樣單口緣·二重口緣土器의 比重이 늘어나는 樣相이 보인다. 기타 器種에 관해서는 確實하지 않지만 埦形土器와 壺形土器의 存在가 推定되며 Ⅴ段階에 臺附埦形土器(第6圖 68)가 새로운 器種으로서 나타난다.

東南部地方의 Ⅳ段階 資料는 아직까지 充分히 얻어진 狀況이 아니지만 花木洞遺蹟의 一部 資料와 梧津里遺蹟 2號 住居址 出土 土器가 이 段階에 該當된다. 梧津里遺蹟 2號 住居址에서는 Bc3·Bc3′類 외에 粗雜한 三角集線文이나 斜格子文이 施文된 土器(Bb2·Bc2類, 第6圖 59·63), 無文樣의 二重口緣土器가 出土되고 있어서 中南部地方과는 다른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粗雜한 三角集線文이나 斜格子文이 施文된 土器가 이 時期의 土器相을 構成하는 要素로서 存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檢討기 必要하는 部分이지만 이것이 東南部地方 全體에서의 樣相이 아니라 內陸地域的인 土器相을 나타내고 있을 可能性도 있다. 또 Ba3·Ba3′類의 存在가 不確實하지만 Ⅲ段階와 Ⅴ段階의 土器相을 參考로 하면 앞으로 出土될 可能性도 생각할 수 있다. 기타 器種으로서는 埦形土器와 壺形土器가 보이며 壺形土器는 역시 無文樣이다. Ⅴ段階에 관해서는 水佳里貝塚 Ⅰ·Ⅱ層이나 栗里貝塚, 凡方貝塚 1·2層 등에서 比較的 良好한

資料가 出土되고 있다. Ba4·Ba4′類와 無文樣의 單口緣·二重口緣土器를 中心으로 하고 水佳里貝塚 Ⅱ層에서 共伴하고 있는 Bc4′類에 관해서는 型式學的으로 檢討한 바와 같이 Ⅳ段階와 Ⅴ段階의 中間的인 樣相을 나타내고 있을 可能性이 있다. 그리고 Bg1′·Bg2′類의 存在는 다른 地域에서 보이지 않은 文樣變異이며 現時點에서 東南部地方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Bg2′類에 관해서는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梧津里遺蹟의 出土樣相에서는 層位的으로 Ⅳ段階에 앞서는 可能性도 있는 것이며 資料의 增加를 기다리고 다시 檢討할 必要性이 있는 文樣變異이다. 기타 器種으로서는 把手附 鉢形土器(第5圖 89)·埦形土器·臺附 埦形土器(同 88)·二重口緣의 大型壺形土器(同 93)가 있으며, 臺附 埦形土器는 中南部地方과 共通되는 器種이다.

中西部地方의 Ⅳ段階 以後에 관해서는 資料的으로 南部地方의 다른 地域처럼 時期의 細分이 可能한 現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한 段階로 設定하였다. Ba4·Ba4′, Bd3′[78]·Bg1·Be2′類 文樣變異가 보이는데 Bd3′·Be2′類의 存在는 앞 時期부터 이어지는 西南部地方의 地域性을 나타내고 있다. 西南部地方에서는 다른 南部地方의 Ⅳ段階의 特徵的인 文樣變異인 Bc3′類의 出土例가 보이지 않는데 그 時期에 Bd3′·Be2′類가 該當할 可能性도 있다. 기타 器種에 관해서도 分明하지 않지만 Ⅲ段階에서도 보였던 짧은 斜行短斜集線文이 施文된 內灣口緣 埦形土器의 系列에 속하는 土器(第7圖 48·49)가 있다.

5. 맺음말

以上, 南部地方 沈線文系土器群·二重口緣土器群에 관해서 東南部地方·中南部地方·西南部地方으로 地域을 나누고 編年한 뒤, 各 地方마다의 土器 變遷過程의 關係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結果를 簡略히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各 地域의 Ⅰ期에는 地域色이 별로 보이지 않는 비슷한 土器樣式이 各各 存在하고 있고, 그 中에서도 中南部地方과 西南部地方 사이에서 反復刺突文이 施文된 把手附 壺形土器·把手附 鉢形土器 등의 要素들에 있어서 共通點을 찾을 수 있었다. 또 Ⅰ期 段階의 土器樣式과 그것에 先行하는 刺突·押引文系土器群을 比較해 보았을 때, 全面施文이라는 文樣構成 上에서는 큰 差異가 있지만 刺突·押引文系土器群의 늦은 段階에 보이는 여러 集線文이라든지 斜格子文·口緣部 橫走魚骨文·短集線文 등의 文樣形態들이 Ⅰ期 段階의 土器들

78) Bd3類의 口緣部가 二重口緣化된 것이며 第7圖 40·41·43 등이 該當된다.

의 口緣部文樣이나 口緣部從屬文樣으로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全面施文이라는 새로운 文樣構成으로 變化하는 過程에 있어서 旣存의 土器傳統이 部分的으로 남은 것으로 생각된다.

Ⅱ期가 되면 口緣部에 文樣帶가 限定되면서 施文 시작 位置가 口緣部에서 약간 떨어지게 된는 點에서는 地域差를 認定하기 어려우나, 壺形土器 등에서는 앞 時期에 보였던 地域差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差異는 東南部地方과 中南部·西南部地方 사이에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Ⅲ期는 中南部地方에 있어서 소위 鳳溪里式土器의 成立을 特徵으로 하는 時期이다. 中南部地方에서 그 變化樣相이 다른 地域보다도 약간 일찍이 일어났을 可能性이 있는데, 그것은 中南部地方에 있어서 Ⅱ期 段階의 土器樣式에서 鳳溪里式土器로의 型式變化 樣相이 다른 地域보다도 連續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鳳溪里式土器 成立 以後, 周邊地域으로 擴散하는 一定 期間은 周邊地域에서 前 段階的 土器를 使用했었을 可能性도 있지만 型式學的 檢討에서는 各 地域의 Ⅲ期는 거의 竝行하는 時期라고 할 수 있다. Ⅰ段階에 南部地方의 全域으로 沈線文系土器群의 擴散現象이 보인 後, Ⅱ段階에 各 地域의 地域性이 약간씩 나타나고 다시 Ⅲ段階가 되면서 아마 中南部地方을 中心으로 한 鳳溪里式土器의 擴散現象이 나타나는 時期로 特徵지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東南部地方·中南部地方의 Ⅳ·Ⅴ期, 西南部地方의 Ⅳ期에 관해서는 各 地域에서 二重口緣土器의 出現이라는 部分에서 劃期의 設定이 可能하며 各 地域 사이에서는 二重口緣이나 一部 文樣變異에서는 共通點이 있으면서도 文樣變異나 器種構成에 있어서는 地域性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二重口緣化라는 變化와 기타 文樣變異의 變化에 質的인 差異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變化가 地域마다의 土器傳統을 이어받으면서 이루어진 結果로서 나타난 地域差라고 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은 東南部地方·中南部地方·西南部地方 各 地域마다의 地域色이 나타난 背景에는 各 地域의 海岸部遺蹟과 內陸部遺蹟 사이에 이루어진 資源들의 交易을 中心으로 한 交流關係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當然히 그러한 交流關係는 地域의 境界를 넘어서 海岸部遺蹟들 사이·內陸部遺蹟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졌을 것이며 東南部 海岸地域과 中南部 海岸地域, 中南部 內陸地域과 西南部 內陸地域 사이에 보이는 共通性의 理由도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交流route는 그 以前 段階부터 存在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 '길'을 통해서 文化의 傳播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參考 및 引用文獻

廣瀨雄一 1989「韓國南部地方櫛目文後期의 變遷」『九州考古學』64, 九州考古學會

啓明大學校博物館 1994『金陵 松竹里遺蹟』

及川民次郎 1933「南朝鮮牧ノ島東三洞貝塚」『考古學』4-5, 東京考古學會

金建洙 1998「湖南地方의 新石器時代 生業」『湖南考古學報』7, 湖南考古學會

金廷鶴·鄭澄元 1980『金谷洞栗里貝塚』, 釜山大學校博物館

大曲美太郎 1934「慶南多大浦にて貝塚發見」『ドルメン』3-6

朴淳發·李亨源 1999「大田 月坪洞 櫛文土器 및 高句麗土器 散布遺蹟」『湖西考古學』創刊號, 湖西考古學會

宋銀淑 1991『韓國 南海岸地域 新石器文化에 대한 考察』, 서울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1998「湖南 內陸地域 新石器文化에 대한 考察」『湖南考古學報』7, 湖南考古學會

申鍾煥 1995「新石器時代 錦江式土器에 對한 小考」『嶺南考古學』17, 嶺南考古學會

沈奉謹 1989『陜川鳳溪里遺蹟』, 東亞大學校博物館

1998「晉州上村里遺蹟出土 新石器時代 甕棺」『文物硏究』2, 東亞細亞文物硏究學術財團

安春培 1981「山淸 江樓里 先史遺蹟」『釜山直轄市立博物館 年報』4, 釜山廣域市立博物館

有光敎一 1936「朝鮮釜山府瀛仙町の一貝塚に就いて」『人類學雜誌』51-2, 東京人類學會

_____ 1965「釜山岩南洞貝塚土器」『朝鮮學報』36, 朝鮮學會

李東注 1991「韓國 南部內陸地域의 新石器時代 有文土器硏究」『韓國上古史學報』7, 韓國上古史學會

_____ 1997「全面施文 沈線文土器文化의 展開와 編年」『古文化』50, 韓國大學博物館協會

_____ 1999「빗살文土器文化의 性格」『先史와 古代』13, 韓國古代學會

_____ 2000「南江流域의 新石器文化와 日本列島 -晉州 上村里遺蹟을 中心으로-」『晉州南江遺蹟과 古代日本 -古代 韓日文化交流의 諸樣相-』, 慶尙南道·仁濟大學校加耶文化硏究所

_____ 2001「中東部 海岸地域 빗살문토기 文化의 性格 -南海岸地域과의 關聯性을 中心으로-」『韓國新石器硏究』創刊號, 韓國新石器硏究會

李相均 1998「湖南地域 新石器文化의 樣相과 對外交流」『湖南考古學報』7, 湖南考古學會

李永德 2000「노래섬 '가' 地區貝塚 櫛文土器 考察」『韓國新石器硏究會 學術發表會 論文集 2000-1』, 韓國新石器硏究會

_____ 2001「鎭安 갈머리(葛頭)遺蹟 發掘調査 槪報」『韓國 新石器時代의 環境과 生業』, 東國大學校 埋藏文化財硏究所

林尙澤 1998「湖西新石器 文化의 時空的 位置」『湖西地方의 先史文化』, 第1回 湖西考古

學會學術大會 發表要旨, 湖西考古學會
任孝宰 1983「西海地域의 櫛文土器文化 -編年을 中心으로-」『韓國考古學報』14·15, 韓國考古學會
佐藤達雄 1963「朝鮮有紋土器の變遷」『考古學雜誌』48-3, 日本考古學會
田中聰一 1998「韓國 新石器時代 前期의 一樣相 -南部地方 瀛仙洞式土器 編年試論-」『考古歷史學誌』13·14, 東亞大學校博物館
_____ 1999「韓國中西部地方の新石器時代土器について」『先史學·考古學論究』Ⅲ, 白木原和美先生古稀記念獻呈論文集, 龍田考古學會
鄭澄元 1982「南海岸地方의 櫛文土器 硏究(1) -釜山·慶南地方 晩期櫛文土器의 檢討-」『釜山史學』6, 釜山大學校史學會
鄭澄元·林孝澤·申敬澈 1981『金海 水佳里 貝塚』, 釜山大學校博物館
鄭澄元 외 1994『淸道 梧津里 岩陰 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
齊藤忠 1935「慶尙南道蔚山郡西生面出土の「櫛目文樣」土器片」『考古學雜誌』25-6, 日本考古學會
趙顯福 1993『嶺南內陸地方出土櫛目文土器에 대한 一考察 -型式分類와 編年을 中心으로-』, 東義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 學位論文
崔鐘圭 1977『幾何文土器編年表作成을 爲한 一小考』, 釜山大學校碩士學位論文
崔鐘赫 2000「新石器時代 南海岸地域 土器編年에 대한 檢討 -中期를 中心으로-」『考古歷史學誌』16, 東亞大學校博物館
韓炳三 1970『矢島貝塚』, 國立中央博物館
韓永熙 1998「湖南地域 新石器文化」『湖南考古學報』7, 湖南考古學會
橫山將三郎 1931,「釜山絶影島東三洞貝塚調査報告」『史前學雜誌』5, 史前學會

A. Mohr, C. S. Chard, L. L. Sample(岡田宏明 譯) 1966「朝鮮新石器時代初期の土器編年に關する新資料」『朝鮮學報』41, pp.73~82, 朝鮮學會
L. L. Sample 1974「Tongsamdong : A Contribution to Korea Neolithic Culture History」『Artic Anthoropology』XI-2

土器 變遷過程圖(第5~7圖)에 提示한 各 資料의 出土遺蹟

第5圖

1·49 : 東三洞貝塚, 2·4·59~67 : 梧津里遺蹟, 3·6~8·11·12·14·15·17~42·45~48·50~58·68·72·78·80·91·93 : 水佳里貝塚, 5·43·44·69·79·82·86·88·90 : 凡方貝塚, 9·10·13·16 : 多大浦貝塚, 70·71·73~77·81·83~85·87·92 : 栗里貝塚, 89 : 農所里貝塚

第6圖

1~25·35·36·38·40·42·44·48·49·51~53·55·56·58·59·61·62 : 上村里遺蹟, 26·27·32·33·46 : 大也里遺蹟, 28~31 : 牧島里貝塚, 34·37·39·41·43·45·47·50 : 壬佛里遺蹟, 54·57·60·63~67 : 鳳溪里遺蹟, 68 : 舊坪里貝塚

第7圖

1·4·7·10·11·13·17·19~24·29·31·41·46·47 : 屯山遺蹟, 2 : 상서동遺蹟, 3·6·9·12·14~16·18·35~39·45 : 갈머리(葛頭)遺蹟, 5·8·42~44 : 노래섬(歌島)貝塚, 25~28·30·32~34 : 雙淸里遺蹟, 宋村洞遺蹟